



#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265期(2025.12.05) [WWW.MINGHUI.ORG](http://WWW.MINGHUI.ORG)

한글판 1029호 [minghui.or.kr](http://minghui.or.kr)



▲ 명혜망 제22회 중국 법회가 11월 9일 개막하여, 12월 2일에 끝났습니다.

## 주 요 내 용

【해외종합】 신탕련 '中新2호' 사용중단, 중문 시청은 '日星' 사용

【중국법회】 '사(私)'를 닦아버리다

【중국법회】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진상 알리기를 견지하다

【중국법회】 충성스럽고 용맹하게 사부님을 도와 정법의 길을 걷다

【중국법회】 법 암기와 투고 과정에서의 수련 체험

# 〈목차〉

##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3
신탕련(新唐人) ‘중신(中新)2호’ 사용중단, 중문 시청은 ‘일성(日星)’ 사용	10

##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2
---------------------------	----

## ■ 중국법회

‘사(私)’를 닦아버리다	15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진상 알리기를 견지하다	24
충성스럽고 용맹하게 사부님을 도와 정법의 길을 걷다	39
법 암기와 투고 과정에서의 수련 체험	56
80년대생, 대법을 착실히 수련하며 당(黨)문화를 닦아버리다	67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뉴질랜드의 파룬궁수련자들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북섬과 남섬의 네 개 주요 도시에서 총 다섯 차례의 성대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에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오클랜드 크리스마스 대퍼레이드를 비롯해 오클랜드 오레와(Orewa) 지역, 로토루아(Rotorua), 더니든(Dunedin), 그리고 남섬 최남단 도시인 인버카길(Invercargill)의 퍼레이드가 포함됐다. 천국악단의 파란색과 하얀색이 조화를 이룬 고전풍 복장과 힘차고 맑게 울려 퍼지는 금관 악기 연주는 현장의 축제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많은 관객의 연이은 찬사를 받았다. 아름답게 꾸며진 ‘법선(法船)’에는 중국어와 영어로 적힌 ‘진선인(眞善忍-진실·선량·인내)’의 메시지가 또렷하게 드러났고, 그 뒤를 잇는 용춤팀은 생동감 넘치는 용의 움직임과 역동적인 리듬으로 아이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거리 양옆에 선 사람들은 끊임없이 손을 흔들며 환호했다. 많은 관객은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중국공산당(중공)이 여전히 파룬궁을 박해하고 있는 잔혹한 현실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파룬궁수련자들이 사회에 진선인의 보편적 가치를 꾸준히 전하는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11월 27일, 미국 시카고는 제91회 추수감사절 대형 퍼레이드를 맞이했다. 이날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음에도 현장 관중들은 추위를 무릅쓰고 이 연례행사를 관람하러 왔다. 시카고 지역 파룬궁수련자들은 올해로 22년 연속 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수련자들은 장엄한 기수대, 평화로운 연공 퍼레이드 행렬, 응

장한 대형 연꽃 꽃차로 현장 관중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많은 관중이 연공 동작을 따라 했고 관중들에게서 박수와 환호가 끊이지 않았다. 퍼레이드 주최 측은 더 많은 관중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이 사랑받는 명절 전통의 멋진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퍼레이드 전 과정을 CBS 시카고에서 생중계하고, 동시에 플루토 TV(Pluto TV)에서 방송하며, 캔TV(CAN TV)에서 재방송한다고 밝혔다. 생중계 주관사인 CBS 시카고는 공개한 34초 분량의 퍼레이드 예고편에서 2024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 퍼레이드의 멋진 장면을 주요 하이라이트로 삼았다.

시카고 CBS 방송국 외에도 ABC 방송국, NBC 방송국 등 여러 주류 매체가 당일 시카고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뉴스 보도에서 모두 파룬궁수련자 퍼레이드 행렬의 멋진 순간을 보여주었다.

11월 15일과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의 일부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탬파 전시 센터(Florida State Fairgrounds)에서 열린 심신 건강 박람회(Mind Body Spirit Expo)에 참가했다. 수련자들은 박람회에서 사람들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소개했고, 많은 사람이 발길을 멈추고 진상을 알아봤다. 수련자들은 또한 15일 토요일 오후에 1시간 동안 주제별 강좌를 열어, 인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진상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했다.

10월 9일,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미나스제라이스 등 브라질 각지에서 온 파룬따파 수련생들이 상파울루 도심의 파울리스타 대로에 모여 행사를 열고 파룬따파 수련의 이로움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그들은 또한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중공이 파룬궁수련생들에게 가하는 지속적인 박해의 진상을 알렸다. 파룬궁수련생들의 공법 시연과 진상 패널, 연꽃, 서명 운동은 많은 행인의 발길을 불

잡았고, 사람들은 잇달아 청원서에 서명하며 중공의 폭행을 종식할 것을 촉구했다. 알라고아스(Alagoas)는 요리사로, 공산당이 역사적으로 늘 국민을 억압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중공이 파룬궁수련생과 다른 양심수에게 생체 장기적출을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알라고아스는 이런 행위를 “너무나 사악하다”, “악마와 같다”고 규탄했다. 그는 말했다. “여러분의 활동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에게 공산당의 사악함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들은 공산당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니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감사드립니다!”

11월 24일, 호주 여러 도시에서 모인 파룬궁수련자들이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호주에 입국한 중공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가 파룬궁 탄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으며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도 연루돼 있다고 폭로하며, 호주 정부가 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호주 파룬파파 학회 대변인 존 델러(John Deller)는 연설에서 “자오러지는 평범한 방문객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자”라며 “외국 고위 인사의 방문을 환영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호주는 무고한 국민을 박해하고 고문하며 죽음으로 몰아간 공산정권의 관리를 함부로 환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다수의 파룬궁수련자가 나서 자신과 가족이 중공의 잔혹한 박해로 겪은 피해를 증언하며, 국제사회가 나서서 선량한 신앙인을 향한 폭압을 중단시키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11월 29일과 30일, 프랑스 파룬궁수련자들은 프랑스 낭트(Nantes), 아미앵(Amiens), 파리에서 각각 파룬궁을 소개해 진

상을 알리고 서명 활동을 진행했다. 수련자들이 간 곳마다 시민들은 걸음을 멈춰 파룬궁수련자의 평온한 공법 시연을 지켜봤으며, 파룬궁 박해 진상을 듣고 크게 충격과 분노를 나타냈다. 시민들은 잇따라 서명해 마음을 전했다. 지셀 벨르(Gisèle Bellew)는 국제 앰네스티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파룬궁 관련 사례의 증언을 많이 접해 왔다. 그녀는 “저는 장기적출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극도로 잔혹한 행위입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파룬궁수련자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 진상을 시민들에게 폭로하고, 폭로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된다고 설명했다.

11월 15일과 25일, 프랑스 파룬궁수련자들이 각각 프랑스 랭스와 파리에서 행사를 개최했다. 사람들이 파룬궁수련자의 평화로운 연공 시연을 보고 파룬궁 박해 진상을 알게 된 후 박해 반대 청원서에 서명하고 파룬궁수련자에게 말했다. “중공은 매우 음흉하니 부디 몸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은 “힘내세요, 끝까지 견지하세요”라고 말했다. 유럽에 거주하는 한 95세 중국인은 벨빌에서 파룬궁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좋은 사람은 중국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당신들이 좋은 사람이 되면 공산당은 바로 당신들을 괴롭힐 겁니다. 공산당이 이렇게 사람을 해쳐서 우리 이렇게 큰 나라가 이 지경이 됐어요. 그들은 아직도 자신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들이 가장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수련자에게 “몸조심 많이 하세요. 우리는 그들(중공)이 끝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떠날 때 그는 각종 중국어 진상 자료를 가져가며 중국 친구들에게 주겠다고 했다.

11월 25일, 파룬궁수련자들이 폴란드 크라코프 시민센터에서 초청을 받아 ‘파룬따파 정보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수련자들은 또

‘파룬궁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소개 영상을 상영했다. 파룬따파를 처음 접한 크라코프 시장 대표 아투르 브셰크는 “이것(파룬따파)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잠시 멈추고 내면의 평화를 느껴보세요”라고 권유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폐룬 재단(the Perun Foundation)의 미하우에게 파룬따파의 보편적 가치인 진선인이 사람들이 자아를 되찾도록 돋는다고 소개했다. 미하우는 이에 깊이 공감했으며,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만날 때 파룬따파와 같은 수련법을 통해 본성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월 7일부터 9일까지, 파룬궁수련자들이 루마니아 티미쇼아라(Timișoara)에서 열린 에조테릭 축제(Ezoteric Fest)에 참가했다. 에조테릭 축제는 티미쇼아라에서 매년 개최되는 신체·마음·영혼에 관한 전반적인 교류 모임으로, 현지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역사가 깊은 전인적 치유, 영성, 건강(holistic·spiritual·wellness) 주제 전시회 중 하나이다. 활동 기간 수련자들은 파룬따파의 다섯 가지 공법을 시연했고, 관심 있는 사람들도 와서 연공했다. 마사지사 도이나 도가루(Doina Dogaru)는 대법서적 한 권을 펼쳐 파룬(法輪) 도형이 인쇄된 페이지를 봤을 때, 잠시 멈춰 파룬을 응시하더니 이내 손을 도안 위에 얹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루는 말했다. “파룬을 봤을 때 매우 강력한 에너지와 감정을 느꼈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제가 손을 파룬 위에 얹은 것은 바로 그 감정과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 서였습니다.” “진선인을 좌우명으로 삼는 것은 진정한 생활 방식, 진정한 인품, 그리고 사람과 정신의 진정한 융합을 실현하는 가치입니다. 사람과 창조주의 온전한 연결은 바로 진선인 위에 건립됩

니다. 사랑과 빛을 지니고 완벽한 조화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첫걸음이자 시작입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수련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을 알게 되어 기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법이 있다는 것도 기쁩니다. 꼭 배워서 연공하겠습니다.”

11월 22일, 네덜란드 파룬궁수련자들이 베넨달(Veenendaal)에서 파룬따파의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22일 정오, 파룬궁수련자들은 베넨달의 호그스트라트(Hoogstraat)에서 파룬궁 진상 전시판을 설치하고 파룬궁 5장 공법을 시연하며 행인에게 전단을 나눠주고, 중국에서 중공에 의해 26년간 지속된 파룬궁 박해 사실을 알렸다. 사람들은 중공의 파룬궁수련자 대상 생체장기적출 반대 서명부에 서명하며 파룬궁 박해를 반대했다. 한 기독교인 남성은 진상 전시판 내용을 보고 나서, 중공이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파룬궁수련자를 잔혹하게 박해하는 무자비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묻고는 서명부에 서명했다.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도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제23회 푸네 도서전(Pune Book Fair)에 참가했다. 부스에서 파룬궁수련자들은 《파룬궁(法輪功)》과 《전법륜(轉法輪)》 두 권의 주요 저서를 전시했다. 책은 힌디어, 영어, 현지어인 마라티어로 제공됐다. 수련자들은 이 과정에서 유명 작가, 공군 대령, 문학 학자, 교수, 연극 및 방송 예술가 등 여러 저명인사와 만날 기회도 가졌다. 이들은 수련자들이 개인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고 파룬따파를 전파하려는 노력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했다. 저명한 마라티어 작가이자 투카람 성인(Tukaram Saint) 10대 계승자인 사다난드 모르(Sadanand More) 박사가 파룬따파 부스를 방문해

파룬따파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련자들은 그에게 파룬따파를 간략히 소개했으며, 그는 이 깊이 있는 수행법을 알리기 위해 수련자들이 보여주는 헌신적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했다.

인도네시아 말랑시의 파룬궁수련자들이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말랑 체육제(Masfest 2025)에 초청받아 참가했다. 파룬궁수련자들은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파룬따파와 주요 저작 ‘전법륜’과 ‘파룬궁’을 소개했다. 수련생들은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서 직접 시연하신 파룬따파 공법 교육 영상과 파룬따파를 간략히 소개하는 영상을 번갈아 상영했다. 일부 수련생은 다른 체육단체의 전시 부스도 방문해 전단을 나눠주고 파룬따파의 진상을 전했다. 말랑시 인도네시아 공동체 체육위원회 회장 소피안 에디 자르워코(Sofyan Edi Jarwoko)는 파룬궁수련자들의 참여를 환영하며, 파룬따파가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해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욱 충실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말랑시 지역 방송사인 가자야나(Gajayana) TV의 기자 기젤라(Gisella)는 수련자의 설명을 듣고 “파룬따파는 정말 흥미롭다!”라며 감탄했다. 그녀는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이 에너지와 정신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파룬따파는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선인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선인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말레이시아 파룬따파 보도원(輔導員) 법학습 교류회가 쿠알라룸푸르시에서 열렸다. 쿠알라룸푸르, 페낭, 이포, 페락, 조호바루, 그리고 멀리 동말레이시아 사바주 각지의 연공장 보도원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1박 2일간의 법학습 교류 대회를 개최했다.

## 신탕런(新唐人) '중신(中新)2호' 사용중단, 중문 시청은 '일성(日星)' 사용

[명혜망](해외 단신) 최근 몇 달 동안 신탕런 TV의 88도 중신(中新)2호 신호가 끊기는 현상이 있었다. 신탕런 TV 기술부와 확인한 결과, 88도 중신2호는 이미 사용이 중단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중국 시청자들은 중국어 방송을 시청할 때 '일성(日星) JCSAT-2B(154도)'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최근 몇 달 동안 일성 JCSAT-2B(154도) 역시 신호 강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해 화면 불안정, 영상 끊김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신탕런 기술부가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므로, 시청자들은 함부로 위성 접시의 각도를 조정하거나 수신기를 교체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그렇지 않으면 신호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도 수신이 어려울 수 있다.

JCSAT-2B(154도)를 수신하려면 먼저 본인이 있는 지역이 위성 신호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범위 밖이라면 수신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상세 내용은 154도 위성 KU 대역 전계강도 지도를 참고하길 바란다.

신탕런의 JCSAT-2B(154도)는 편피드 위성 안테나(일명 '작은 접시')로 수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천지행 문고 위성수신 자료', 명혜망 교재 〈베란다·창문에서 JCSAT-2B 신탕런 수신 방법 모음〉을 참고할 수 있다.

기존에 88도 중신2호를 수신하던 정피드 위성 안테나(일명 '큰 접시')도 JCSAT-2B 수신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조정 난도가

높아 숙련된 설치 기술자가 특별한 고정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또한 Ku 대역용 LNB(고주파 헤드)로 교체해야 한다. (기존의 C 대역 LNB는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천지행 교재 〈정피드 접시 하나에 한 위성 수신〉’을 참고하되, 교재에 나오는 이미 사용 중단된 ‘한성 5호’의 파라미터를 JCSAT-2B(154도)의 파라미터로 바꿔 조정해야 한다. 최근 JCSAT-2B 신호가 불안정해져 위성을 찾는 과정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컴퓨터에서 ‘아이보TV’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신탕런을 시청할 수도 있다.

기술 포럼에서도 위성 수신 신호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겪는 경우 기술 포럼에 질문을 올리길 환영한다. 포럼에는 최신 정보가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후난성 창더시의 왕샤오췬(王曉群), 리둥즈(李冬枝), 리웨이윈(李偉雲), 인홍(尹紅), 류센쥐(劉先菊), 야오저우(姚洲), 양비중(楊碧瓊) 등 파룬궁수련자 10명이 약 2년 동안 부당한 누명을 썼고, 2025년 11월 12일 타오위안현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불법 판결을 받았다. 왕샤오췬(여·76세): 불법적인 징역 5년, 벌금 8천 위안, 리둥즈: 불법적인 징역 4년, 벌금 6천 위안, 리웨이윈, 인홍: 불법적인 징역 3년 9개월, 벌금 6천 위안, 류센쥐, 야오저우: 불법적인 징역 3년 6개월, 벌금 5천 위안, 양비중(여·73세): 불법적인 징역 3년, 벌금 5천 위안, 양구이밍(楊桂明): 불법적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천 위안, 유추원(尤楚雲): 불법적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벌금 2천 위안, 둥밍팡(董明芳): 불법적인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 5백 위안이다.

2025년 11월 하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지린성 자오허시 60대 파룬궁수련자 왕슈롄(王秀蓮)이 현지 법원의 부당한 판결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세한 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2023년 10월 27일 오전 9시경, 자오허시 공안국 허베이제 파출소 경찰이 파룬궁수련자 류후이징(劉慧清)의 집에 들이닥쳐 왕슈롄과 류후이징을 납치했다. 다음날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처분보류(取保候審)’로 풀려났다. 2025년 7월 10일경, 유랑생활을 한 지 반년이 넘은 왕슈롄은 광시좡족자치구에서 현지 경찰에게 납치됐고, 이후 자오허시 경찰에 의해 지린시 구치소로 납치돼

불법 감금됐다. 중공 악당이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하는 중에서 왕슈롄은 2012년 비밀리에 부당한 형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린성 여자감옥에서 박해받은 적이 있다.

산둥성 허쩌시 차오현의 70대 파룬궁수련생 가오멍화(郜孟花)는 4년 전(2021년 8월) 불법으로 4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5년 8월 중순, 그녀는 감옥으로 납치돼 산둥성 여자감옥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 2020년 3월, 가오멍화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가 현지 경찰에게 납치됐고, ‘처분보류’로 풀려났다. 2021년 8월, 차오현 법원은 가오멍화에게 불법적으로 4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그녀는 감옥에 수감되지 않았는데, 건강 문제 때문인지 혹은 당시 팬데믹 상황 때문인지 원인은 알 수 없다. 4년이 지난 2025년 8월 중순, 차오현 법원은 위법한 판결을 집행해 가오멍화를 산동 지난 여자감옥으로 납치했다.

후베이 우한시 차오커우구의 파룬궁수련자 황위펑(黃玉鳳)은 다리에 장애가 있었고, 퇴직 후에는 때때로 전기오토바이를 몰고 영업하여 가계를 보탰다. 2017년 10월에 납치되어 조작된 혐의로 불법적으로 2년 형을 선고받아 우한시 여자교도소에서 박해를 당했다. 출소 전 강제로 주사를 맞은 뒤 온몸에 힘이 없고, 심장이 괴롭고 답답했으며, 출소 후에는 신체 상태가 매우 나빠졌다. 심장이 괴롭고, 두통·머리 팽창감·허리 통증·양쪽 팔 통증 등이 있었다. 황위펑은 2024년 9월경 원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으며, 향년 66세였다.

2025년 11월 2일, 3일 이틀 동안 낭샤 인촨시 32명의 파룬궁수련자와 그들의 친척 또는 이웃 4명이 낭샤 인촨시 국보(국내안

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공안 및 파출소 인원들에게 가택수색, 납치 박해를 당했다. 이들 중 몇몇 파룬궁수련자는 자물쇠를 부수거나 몰래 문을 열고 침입해 납치됐다. 일부는 길을 걷다가 납치됐다. 21명의 파룬궁수련자가 이미 귀가했고, 8명의 파룬궁수련자는 구치소에 불법 구금됐다. 그들은 셰이창(謝毅強), 리진화(李金花), 선동메이(申冬梅), 우진팡(吳進芳), 량위화(梁玉華), 리스린(李仕林), 주린(朱琳), 딩첸(丁乾)이다.

## ‘사(私)’를 닦아버리다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수련을 시작했고, 올해로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저는 수련 중에서 제 ‘자아(自我)’가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남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남을 이해하지 않으며 항상 제가 옳다고 여기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또 ‘자아’가 ‘사(私)’의 일종의 표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저는 최근 업무와 생활 중에서 ‘사’를 닦아버린 경험을 공유하여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들과 교류하고자 합니다.

### 1. 업무 중에서 ‘사(私)’를 닦아버리다

제가 속한 회사는 작지만 정예 팀이고, 저는 팀 책임자로 부하직원 3명이 있는데, 그중 부하직원 A와 B는 같은 직무이고 C는 다른 직무입니다. 제 본성이 매우 ‘개인주의적’이어서 남을 별로 신경 쓰지 않기에, 저는 사람 관리하기를 원치 않았고 또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사람은 각자 자기 업무를 독립적으로 책임지며 아무 일 없이 지냈는데, 최근 몇 달간 팀 내 문제가 집중적으로 폭발했습니다.

#### 사건 1:

회사에서 올해 새로운 복지 혜택을 추가했는데 직원들에게는 매력적인 것이었지만, 규정 준수와 관련된 일부 원인으로 B는 이 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B는 이 혜택을 간절히 원해 스스로 자신의 인맥을 통해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해 다방면으로 자문했습니다.

다. 저 역시 타 부서 동료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소통했습니다. 당시 제 업무도 꽤 바빴지만 B의 일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갖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B가 다른 지역에서 근무했기에 그녀는 제가 그녀를 위해 한 이런 일들을 몰랐습니다. 어떤 수속을 밟아야 했는데 시간이 매우 촉박해 저는 A에게 어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A는 당시 처리하긴 했지만 매우 화가 나서 제 상사를 직접 찾아가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B는 이 방안이 자신의 이익에 일정한 손해를 끼친다고 여겨 회사에 보상을 요구했고, 보상해주지 않으면 이 복지 혜택을 받을지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화상으로 B는 제게 불만을 쏟아내며, 제가 그녀의 일을 신경 쓰지 않아 무슨 일이든 다 자신이 직접 알아봐야 했다며 섭섭해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순간 견딜 수 없었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 일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A에게 원망을 사며 상사까지 찾아가게 했는데 B는 고마워하지도 않는구나.’ 저는 이 상황을 상사에게 보고했는데 상사도 제가 처리를 잘 못했다며 저를 질책했습니다.

퇴근길에 생각할수록 억울해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법리(法理)상으로는 이것이 저를 시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지만 마음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참기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고, 행하기 어려운 것도 행할 수 있다”(전법륜)를 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우선 억지로 참으며 강제로 그 일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고, 사부님의 시를 외웠습니다. “옳은 것은 그이고 잘 못된 건 나이니 다툴 게 뭐 있느냐”(홍음3-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억울함이 끊임없이 치밀어 오르면 저는 끊임없이 외웠습니다. 다음 날이 그달 처리 마감일이었는데, 안 그러면 다음 달로 미뤄야 했고, 게다가 A는 우리 쪽 수속을 다 마쳤고 B가 있는 지역의 수속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억울함을 참고 상사와 함께 B에게 줄 보상 방안을 상의했고, 확정한 후 B에게 전화했으며 상사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B의 태도는 지난번 소통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게 각종 불만을 표했고, 저는 이번에는 정면으로 대하며 사실대로 제가 그녀를 위해 한 갖가지 일들과 A가 그녀 일 때문에 야근하며 협조한 상황을 다 말해줬습니다. 그녀는 듣더니 보상 방안을 받아들였고 자신이 우리를 오해했음을 알았으며 전화상으로 제게 사과했습니다. 당일 B는 거주지 수속을 밟았고 모든 일이 해결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의 많은 억울해하는 마음을 닦아버렸습니다. 또한 저는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관점에서 문제를 고려했고 부하직원의 관점에서 고려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사(私)다. 내가 사람 관리를 싫어했기에 B의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B가 기다리다 못해 재촉해서야 비로소 해결하기 시작했지 않은가. 근본적으로 따지면 내가 먼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 부하직원의 불만을 초래한 것이다.’

## 사건 2:

사건 1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두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일: 사건 1 때문에 A가 몹시 화가 나서 제 상사를 찾아가 업무상 저의 많은 문제점을 말했는데, 주로 제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제게 불만이 매우 컸습니다.

그들이 면담을 끝낸 후 상사는 곧장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A의 피드백을 듣고 첫 반응은 역시 억울함이었고 그다음에는 답답했습니다. 관리 문제에서 제가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노력해서 고치고 있었지만 부하직원과 상사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다 듣고 나서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저를 교체해주세요.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일: 업무 분장 일로 B가 또 제게 문제를 제기하며 A와 업무 분장 경계를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A의 업무 습관과 방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동시에 제게 몇 가지 일을 열거하며 증명했습니다.

이 통화는 거의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 그녀는 시종일관 강한 태도였고 몹시 화를 냈습니다. B가 말한 상황에 대해 저는 대부분 잘 몰랐지만, B가 말한 상황이 확실히 A에게 존재하는 문제임은 분명했습니다.

통화 중에 저는 먼저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A의 업무 중에 나타난 이런 문제는 주로 제가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명확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동시에 두 사람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제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 두 사람의 협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머리가 지끈거렸고 이것이 또 저를 시험하려 왔음을 알았습니다. B의 태도가 어떠한지는 이제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갈피를 잡을 수 없었고, 내심 매우 괴롭고 하기 싫고 두려운 생각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저는 이것이 또 제께서 ‘사’를 닦아버리게 하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상사에게도 이 상황을 보고했고, 상사의 피드백 역시 제게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분장 문제부터 시작해 매주 주간 회의를 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매일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부하직원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고를 생각지 말고, 자아의 느낌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 생각하자.’

약 2주 정도 시간을 들여 방안을 생각한 후, 저는 억지로 머리를 들이밀고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기에 업무 절차상의 모든 세부 사항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후속 해결 방안까지 팀원들에게 하나하나 말해줬고, 회의에서 A와 B도 개선 건의를 내놓아 최종적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다음 달부터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후 상사도 이번 결과에 만족을 표하며 이것이 저의 진짜 능력인데, 이전에는 저의 의지 문제로 마땅한 수준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에 오자 마음의 짐을 반쯤 던 것 같았고, 제게 이런 기회를 배치해 또 일부 ‘사심(私心)’을 닦아버리게 해주신 사부님께 매우 감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또 도전이 닥쳤는데 바로 매주 주간 회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팀이 월초에 한 번 회의하고 그달의 업무를 배정한 뒤 각자 독립적으로 일했는데, 이제 매주 하는 것으로 바뀌니 마음속으로 몹시 두려웠습니다. 매번 회의 전 저는 많은 시간을 들여 마음을 다잡아야 했고 매번 회의 때마다 억지로 머리를 들이밀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 왜 회의하기 싫은 걸까?’

얻은 답안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관점에서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잘 못하는 일이라고 여기지, 팀의 관점, 부하직원의 관점, 상사의 관점에서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여전히 사(私)의 표현이다.’

매주 회의 전 저는 끊임없이 법을 외우며 자신의 ‘사심’을 이겨냈고, 점차 두려운 정서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례 회의를 한 이후 과거에 존재하던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됐습니다. 최근 A, B의 업무 상태도 많이 좋아졌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도 부지불식간에 약화됐음을 느낍니다.

## 2. 생활 속에서 ‘사(私)’를 닦아버리다

얼마 전 이모가 전화해 우리집에 오시겠다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았고, 제가 집에 있을 때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자마자 어머니(수련생)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돈 빌리러 오시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모가 사촌 동생 때문에 제게 두 번 돈을 빌린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급히 쓴다고 해서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송금해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가 또 돈을 빌리려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유를 묻자 사촌 동생에게 빌려주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유는 사촌 동생이 상사에게 비행기 표를 사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집에 손을 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행기 표 가격을 조회해보니 이모가 빌리려는 금액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저는 돈을 이모에게 송금해드렸지만 이번에는 이모에게 사촌 동생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들이 돈을 빌리러 온다면 대다수 사촌 동생 때문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주말에 그들이 와서 상황을 말했는데, 사촌 동생이 끊임없이 집에 돈을 요구해 집안

의 예금을 다 가져갔고, 이모와 이모부의 연금으로도 부족해 이모부가 신용카드 여러 장으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으며,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렸는데, 지금 저에게 빌리려는 것은 신용카드 만기일과 이웃에게 빌린 돈을 갚을 시간이 됐는데 갚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듣고 매우 불쾌했고 그들이 그렇게 무한정 사촌 동생에게 돈을 주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촌 동생은 1년 넘게 집에 오지 않았기에 우리 둘 다 사촌 동생이 밖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저도 이모부에게 제가 빌려주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빌려드릴수록 이모부는 사촌 동생에게 돈을 주셔야 하고, 그러면 악순환이 됩니다. 제가 안 빌려드리면 이모부도 돈이 없고 사촌 동생이 돈을 달라고 해도 줄 능력이 없으니, 이모부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이모부는 제 말을 들더니 바로 가려고 했습니다. 돈을 빌리러 온 것 자체가 창피한데 제게 거절당하자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모부가 너무 격동한 것을 보고 불잡을 수 없어서 이모를 남겨 했습니다. 이모는 어머니와 상의해 돈을 좀 적게 빌려서 우선 이모부의 신용카드 금액이라도 갚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동의했고 저는 속으로 몹시 싫었지만 저도 태도를 표명했습니다. “이 일은 엄마 말을 들을게요. 엄마가 빌려주라고 하면 빌려드릴게요.”

이모가 간 후 저는 생각할수록 답답해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에 우리집에서 집을 살 때 계약금이 부족해 이모에게 돈을 빌리려 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이모네는 돈이 있었지만 전화로 어머니에게 “우리 집은 돈 없어, 안 빌려줄 거야”라고 딱 잘

라 말했습니다. 게다가 우리집이 가장 어려웠을 때 이모는 1년 내내 우리를 보러 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또 한번은 이모가 어머니를 데리고 친척 장례식에 가려고 왔는데, 어머니가 이모 전화를 못 받자 문을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를 마구 쏘아붙였고, 저는 당시 듣다 못해 이모에게 바로 말대꾸해버렸습니다.

과거의 온갖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자 생각할수록 답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상태를 보고 빌려주기로 동의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모는 박해 전에 수련했지만 1999년 박해가 발생한 후 연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해 기간에 이모네는 실제 행동으로 우리의 수련을 지지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일을 통해 그들에게 대법의 아름다움을 실증하고 이모가 다시 수련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이성적으로는 찬성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이모의 과거 일에 앙금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틀렸고 이것이 자신의 ‘사(私)’와 어머니에 대한 정(情)을 건드려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이렇게 분해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파에 앉아 마음이 평온해질 때까지 “참기 어려운 것도 참을 수 있고, 행하기 어려운 것도 행할 수 있다”(전법륜)를 외웠습니다.

다음 주 이모부의 신용카드 상환 만기일 전, 어머니는 이모에게 계좌번호를 물으면서 그들이 빚진 돈이 총 얼마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저와 상의하며 그들이 빚진 돈을 전부 빌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듣자마자 답답한 마음이 또 올라와 여전히 싫었지만, 이번에는 이성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해 어머니가 결정하시라고, 어머니가 빌려주고 싶은 만큼 빌려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모에게 다시 전화해 빚을 다 갚을 수 있게 빌려주겠다고 하자 전화기 너머로 이모와 이모부가 감동하여 울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집에 돈을 가지러 왔을 때 어머니는 그들에게 “내가 수련인이기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하며, 동시에 지난 몇 년간의 수련 경험과 직접 겪은 체험을 말해줬습니다. 이모는 다 듣고 나서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수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자 어머니가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줬는데, 저는 감개무량하면서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감개무량한 것은 이 돈을 헛되이 빌려주지 않았고 이모가 다시 수련할 수 있게 된 것은 확실히 큰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주: 이모는 이전에 수련한 적이 있어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알았고, 이번 일도 사부님께서 이모를 관리해주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돈을 빌려줘서 수련하고 안 빌려주면 수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한숨이 나온 것은 제 ‘사심’이 너무 무거워서, 과거 이모가 어머니에게 줬던 상처 때문에 이모를 계속 용서하지 않아 하마터면 수련의 기연(機緣)을 놓치게 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묵묵히 사부님의 신묘한 배치에 감사드렸습니다. 저의 문제를 폭로해 이 ‘사심’을 닦아버리게 해주셨고, 이모에게도 다시 수련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최근의 경험을 통해 저는 사심이 정말로 사람을 해치며, 제게 여전히 많은 ‘사’의 표현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끊임없이 정진해야만 사부님의 제도해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허스(승十)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진상 알리기를 견지하다

글/ 중국 장쑤(江蘇)성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의 대법제자들은 전반 세간을 포용하고 있으며, 사람마다 하나의 범위가 있다. 당신이 마주친 것과 접촉한 것은 모두 당신이 범위 중의 요소이다. 당신이 정념이 족할 수 있다면, 당신은 곧 당신의 범위 중에서 높고 크게 될 수 있고, 당신의 범위 중에서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을 내리누를 수 있을 것이다. 매 한 대법제자가 모두 이 한 점을 해낼 수 있다면 전 세계가 모두 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계상에서 당신들 매 한 사람이 하나의 아주 큰 범위를 맡았으며, 한 지방의 중생들을 대표했기 때문이다. 나는 늘 당신들에게 안을 향해 수련하고, 문제가 있으면 자신을 찾으라고 알려 주었다. 당신들이 발정념을 할 때 대내적으로는 자신을 청리한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사상을 순정(純正)하게 하는 동시에 또한 당신 몫에 속하고 당신이 담당한 그 환경을 청리하는 것이다.”(각지 설법10-에포크타임스 회의 설법)

진상을 알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곳은 대도시라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고 교통이 발달했습니다. 수년간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서, 저는 현지에서 차를 기다릴 때 혹은 승차하거나 하차한 후에도 진상을 알릴 기회가 매우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버스, 지하철, 고속철도, 여객선, 비행기 등 교통수단 안이나 정류장에서도 모두 진상을 알릴 수 있습니다.

진상을 알린 지 오래됐고, 또 중국공산당(중공)의 납치 원인이

있어 수련생들은 먼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생활하는 범위 내에서는 진상을 알리는 수련생을 거의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수련생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을 멀리 떠나 진상을 알리는데, 차를 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가는 데 4~5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럼 차 안에서는 진상을 알리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면 이곳 사람들은 누가 구하나요?” 그들은 답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알리지 않아요.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아서요. 우리는 길에서 발정념을 하고 법을 외웁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은 누가 구하나’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들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미 법공부를 잘했고, 발정념을 했으니 외출하는 시간은 정념정행(正念正行)으로 시간을 다투어 진상을 알리고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임시로 발정념을 추가해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법제자가 대면해서 알리는 진상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의 확률과 비율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진상을 알릴 때, 많은 사람이 이미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고, 또 접근조차 하지 못한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진상을 알릴 조건을 더 잘 만들기 위해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 1. 현지 정류장에서 알리다

정류장이나 차 안에서 진상을 알리는 것은 확실히 안전 문제가 존재하며, 만약 정념정행하지 못하면 정말로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현재 중공의 감시카메라가 온 지역에 깔려 있고, 안면 인식, 자세 인식, 데이터 분석 등이 범람하는 등 확실히 우리 대법제자

가 진상을 알리고 대법 일을 하는 데 불안전한 요소를 가져다줍니다. 예를 들어 각 정류장 양쪽 끝에는 모두 감시카메라가 있고, 버스 한 대에도 상하좌우 여섯 개의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우리가 문을 나서면 길마다 온통 카메라이니 그야말로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자신을 전면적으로 법 위에 놓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사전에 집에서 진지하게 발정념을 합니다. 문을 나설 때 감시카메라를 향해 발정념을 하여 그것이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수련이 승화됨에 따라 저는 감시카메라도 무고하며, 그것은 단지 사악에 이용됐을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더는 감시카메라를 향해 발정념을 하지 않고, 자신을 전면적으로 단속하며 모든 것을 법 위에서 행하고 사부님과 법을 믿었습니다.

### 2) 주의 깊게 관찰하고, 조건이 허락하면 큰 소리로 알린다

문을 나서면 저는 즉시 인연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하며, 길에서 가능한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면 먼저 주위 상황을 관찰하고 휴대폰을 든 사람을 비교적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에서 진상을 알릴 때 옆에서 듣던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는 바람에 납치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정념으로 지하철 경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때로는 많고 때로는 적어 인파가 거의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 저는 진상을 알리면서 주위의 변화를 관찰하는데, 조건이 허락된다고 생각되면 아예 큰 소리로 말해 차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좀

멀리 서 있던 사람들도 모두 모여들어 제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질문하기도 하는데 저는 하나하나 대답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정류장에서 바로 연공(煉功)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두말하지 않고 즉시 맨바닥에 앉아(어떤 정류장은 의자가 없음) 두 다리를 틀고 바로 시범을 보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제 나이가 곧 80세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들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거의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직접 본인이 가부좌하는 걸 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날렵하게 다리를 트는 걸 보지 못했다면 정말 믿지 못했을 거예요! 곧 여든이라니!”

저는 얼른 말합니다. “이게 바로 파룬궁(法輪功)을 연마해서 나타난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파룬궁이 좋으면 그냥 연마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 파룬궁은 위법이 아니고 그들(당국을 지칭)이 위법이네요.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니 그들 말을 듣지 마세요!” 물론 저도 그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 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알려주고 인연 있는 사람에게 진상 호신부(護身符)를 주는데,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 3) 형세에 따라 알리고, 많이 구할 수 있으면 많이 구한다

정류장에서 진상을 알리다 보면 각양각색의 다양한 연령대 남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번은 40대 정도 된 남성을 만났는데, 어떻게 말을 꺼낼까 생각하다가 그가 손에 약병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동생, 이 봉지에 든 약은 본인이 드시는 건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나이가 드니 병도 많아지네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곧 80세인데 30년

동안 앓아본 적이 없어 의료보험카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오곡을 먹는데 어떻게 병이 안 날 수 있겠냐고 하겠지만, 아! 저는 정말 여태껏 아픈 적이 없어요!”

남성은 얼굴 가득 의혹을 띠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신선 아니세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동생분 너무 재밌네요. 맞게 보셨어요. 저는 바로 신선이 되기 위해 수련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아!” 하고 소리치더니, “노어르신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고, 정말 그렇게 나이가 많으세요? 어쩜 이렇게 젊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불가(佛家) 상승(上乘) 대법인 파룬궁을 수련하는데, 이미 30년이나 수련했고 온갖 병이 다 없어졌어요. 원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던 몇 가지 병과 담낭암이 파룬궁을 수련한 뒤 치료하지 않고도 저절로 낫고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돈 한 푼 안 쓰고, 항암치료도 안 하고, 수술도 안 하고, 약도 안 먹었는데 신기하지 않나요! 사부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선량하고 자비로우며 사심을 버리고, 모두 남을 위해 고려하는 좋은 사람보다 더 고상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파룬궁은 사교(邪教, 사이비 종교)가 아닌가요? 그런데도 감히 연마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속으셨어요. 파룬궁은 사교가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은 국가 최고법인데, 그 안에 제35조에서 제41조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공민은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있다고요. 법을 어기는 건 그들입니다! 파룬궁이 너무 좋아서 많은 고학력자, 첨단 과학자, 고위 간부 당원들이 파룬궁 수련에 참여하니까 장쩌민이 질투심에 불타 전국 당원에게 통지를 보낸 겁니다. 당원은 반드시

파룬궁에서 탈퇴해야 하며, 탈퇴하지 않으면 전부 당적을 박탈하겠다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당원들이 당을 탈퇴하고 계속 파룬궁을 연마한 겁니다! 장쩌민은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권력을 이용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며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 사교도라면 감히 당신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보다 더 빨리 도망갔을 거예요!”

그는 하하 웃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르신 말씀이 맞네요. 한 국가는 《헌법》을 가장 크게 여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버스가 왔고 그가 서둘러 버스에 오르자, 저는 뒤따라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고 합법이며 사람을 구하러 왔다는 걸 기억하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때 버스 위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 듯했습니다. “이 사람이 파룬궁을 말하고 있어!” 저는 그때 두려움이 조금도 없이 그대로 외쳤습니다. “기억하세요!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 평안을 지켜줍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알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얼른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우리 리홍쯔(李洪志)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 우리에게 사람 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리 대사(大師)님 감사합니다!”

#### 4) 먼 것을 추구하지 않으니 먼 손님이 면전에 오다

또 한번은 정류장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작은 관광객 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파룬궁에 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아주 많은 사람이 진상을 듣기를 기다리

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운 곳을 버리고 먼 곳으로 달려가 진상을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은 버스에 오른 뒤 모두 제게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당신의 선량함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제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 그분이 우리 제자들을 이끌어 사람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는 데 너무 빠져서, 버스에 타고 나서야 방금 산 200위안 가까이 되는 식용유를 깜빡 잊고 안 가져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상은 차를 기다릴 때 진상을 알린 몇 가지 사례이며 더는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법시기의 대법제자는 모두 사부가 사람 구하는 것을 도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각 지역 대법제자는 그 지역 사람들이 구도 받을 희망이 되었다.”(이탈리아 법회) 제 느낌에는 우리 현지에도 아직 많은 중생이 진상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기에 우리가 바로 그들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진상을 알리는 것이 여전히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도시는 사람도 많으니 법 위에서 행하기만 하면 안전하고, 알리는 효과도 꽤 좋습니다.

## 2. 현지에서 차를 탈 때 알리다

다음으로 제가 버스를 탔을 때 진상을 알린 상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 1) 지혜와 힘은 법에서 온다

버스를 탈 때 저는 먼저 좌석을 찾지 않고 ‘레이더’ 방식으로 빠르게 훑어보며 안전하게 진상을 알릴 사람과 분위기를 살핍니다. 버스 안은 사람이 많고 구성원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진상을 잘 알리면서도 안전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한번은 진상을 알리는 중에 한 수련생이 버스에 올라타 제가 승객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버스에서 파룬궁을 말해요? 담력도 크시네요! 전 감히 못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담력이 큰 게 아니라 법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정의롭고 위대한 일이고 사람을 구하는 건데 왜 무서워해야 하나요? 하물며 우리 진수(眞修) 제자에게는 모두 호법신(護法神), 정신(正神), 천룡팔부(天龍八部)가 있고, 더욱이 사존의 법신(法身)이 우리를 보호해주시는데, 우리가 정념 정행하고 사부님과 법을 믿는다면 대담하게 하세요! 우리의 소위 담력이 크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아니라 대법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신 말씀이 맞는데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렵네요. 생각하면 여전히 꽤 긴장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법공부를 많이 하세요. 지혜와 힘은 법에서 옵니다. 그리고 선(善)을 닦아야 해요. 순선(純善)이 나오면 사람을 구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 2) “절대로 불법(佛法)을 비방하지 마세요”

한번은 버스 안에서 도중에 한 중년 남자가 탔는데, 손에 들고 어깨에 메고, 또 가득 채운 손수레까지 끌고 탔습니다. 하차할 때

가 문제였는데, 승객들은 그가 너무 느리다고 나무라기 시작했고 기사도 그를 재촉했습니다. 제가 보자마자 두말 않고 즉시 뒷좌석에서 뛰어내려 들고 안고 하며 그가 짐을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빠르게 차에 뛰어올랐는데, 기사가 제가 내리는 줄 알고 저를 두고 갈까 봐서였습니다. 제 핸드백이 아직 차에 있었거든요.

그 남자는 차 아래에서 계속 제게 고맙다고 했고, 차에 가득 찬 사람들과 기사도 저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상을 알릴 기회가 또 왔구나!’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운이 좋으셨네요. 저는 곧 80세인데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도울 수 없었을 거예요!” 차가 출발하자 차 안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곧 여든이라고요? 설마요?”, “차를 타고 내릴 때 그렇게 빨리 뛰는데, 곧 여든인 사람이라고요? 제 눈이 호강하네요!”, “파룬궁을 연마하세요? 파룬궁은 위법이고 국가에서 연마를 허락하지 않잖아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여러분께 책임지고 알려드립니다. 파룬궁은 《헌법》 제35조에서 제41조 규정에 부합합니다. 공민은 신앙의 자유, 신앙하지 않을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있으므로 합법입니다. 국가가 연마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가라는 이 개념을 사용하는 건 규범에 맞지 않고 명사를 잘못 쓴 겁니다. 국가는 《헌법》과 법률을 대표하지 않으며 《헌법》은 모든 것보다 높습니다. 한 국가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헌법》 안에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신문출판총서 《제50호령》을 공포해 파룬궁 서적, 자료 등에 대한 금지령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파룬궁이 완전히 합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더는 남의 말만 듣지 마세요. 파룬궁은 불가 최상의 수련 대법이니 절대로 불법(佛法)을 비방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역시 법을 어기는 겁니다.”

어떤 승객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도 몰라요. 어떻게 된 일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모르면 먼저 파룬궁을 좀 알아보고 다시 말해보세요. 끝없는 혜택을 얻게 된다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제가 노인 같지 않다고 하시는데, 바로 파룬궁을 수련해서 제가 반본귀진(返本歸眞: 진정한 자신의 본원으로 돌아감)해서 젊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연공하기 전의 온몸의 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백발이 검게 변했고 온몸에 힘이 넘쳐요. 더 중요한 것은 파룬궁은 도덕을 닦는 것을 제창한다는 점입니다. 방금 다들 보셨죠? 제가 저 남성분이 짐 내리는 걸 도왔는데, 만약 수련 전이라면 상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자신도 나이가 많은데 제 몸챙기기도 바쁠 텐데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파룬궁은 사교가 아닙니다.”

다들 듣고 분분히 논의했고, 제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사람도 있어 저는 합장으로 답례했습니다. 내릴 때 다들 제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제 옆에 앉았던 사람은 제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갈수록 젊어지시길 바랄게요!”

### 3) “그분이 우리를 사심 없게 하셨습니다”

또 한번은 차 안에서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타는 것을 보고 얼른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저는 그분 옆에 서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분에게 진상을 알렸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저보다 십여 세나 어렸습니다. 보기에도 저보다

훨씬 늙어 보였는데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얼른 일어나 제게 앉으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말했습니다. “아이고, 누님.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데 누님이 앉으세요, 앉으세요!” 제가 하하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앉으세요. 동생은 아프고 저는 안 아프잖아요. 저는 지금 곧 80세 인데 파룬궁을 수련한 후 돈 한 푼 안 쓰고 예전의 고치지 못하던 묵은 병들이 전부 그림자도 없이 사라졌어요. 온몸이 가볍고 나쁜 성격도 고쳤으며 남을 위해 생각할 줄도 알게 됐어요. 보세요, 동생이 방금 차에 탔을 때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얼른 자리를 양보했잖아요. 제가 고령의 노인이라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파룬궁의 선(善)이 제 인격과 인품을 변하게 했으니, 이 파룬궁이 정말 좋다는 게 사실로 증명된 거죠!”

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네. 믿습니다, 믿어요. 방금 누님의 행동이 이미 인품을 증명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심 없게 하셨습니다!” 그도 저를 따라 합장했습니다. 주위 승객들이 모두 보고 들었으며 잇달아 찬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 4) 마음이 바르면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신다

악담을 퍼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 간도 크네. 감히 버스에서 파룬궁을 말하다니, 파룬궁은 사교야. 당장 널 잡아가게 할 거야!” 저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즉시 상대방에게 대답했습니다. “여사님, 당신과 저는 모두 합법적인 공민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어떤 조항도 파룬궁이 사교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무책임하게 하시는데 당신이 법을 어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활가활부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관두지!”, “입 좀 깨끗이 해, 여긴 공공장소고 언론의 자유가 있어!”, “당신이 뭔데 그래, 당신 자신이나 잘 단속해!” 그 여자는 더는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사존께서 저를 보호해주시는구나!'

### 5) 능동적으로 사람을 찾아 알리다

하차 후 정류장에서 진상을 알린 사례를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못해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피동적으로 만나기만 바랄 수 있나요? 능동적으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하차하기 전, 저는 어디서 내릴지 고정하지 않고 사전에 차에서 관찰하다가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과단성 있게 내려서 시간을 다 투어 사람을 찾아 말합니다. 한번은 부부가 동북 사투리를 쓰는 것을 듣고 즉시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동북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도네요!”

두 사람은 매우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어떤 동북 사람이기에 눈물이 핑 돋다는 겁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창춘(長春) 궁주령(公主嶺)의 리홍쯔(李洪志) 선생님을 들어보셨나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사교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던데요?”

제가 얼른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사부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탄복합니다. 그분이 사교를 한다고 말하는 건

장쩌민 패거리가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비방하는 것이며, 죄를 씌우려는데 어찌 말이 없겠습니까. 베이징 천안문(天安門)의 소위 파룬궁 분신 사건, 그것도 장쩌민이 사부님과 파룬궁, 제자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조작한 가짜 불입니다. 사부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파룬불법(法輪佛法)을 수련하게 하시고, 우리를 환골탈태하게 하여 모두 자비롭고 선량한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처를 수련하는 사람은 살생과 자살이 허용되지 않는데 어떻게 천안문에서 분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얼른 말했습니다. “우리도 잘 몰라요. 마침 여쭤보는데 그분이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1996년에 이미 미국 영주권을 얻으셨고, 장쩌민은 1999년에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전후 3년 차이가 나는데 이건 명백한 거짓말과 날조가 아닙니까! 우리 사부님의 파룬궁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널리 퍼져 백인, 황인, 흑인이 모두 수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경서 《전법륜(轉法輪)》은 50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고, 누구든 보면 지혜가 생기고 신체가 건강해지며 사상 도덕 소양이 향상됩니다.”

이 부부는 듣더니 뭔가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우리가 들은 것과 완전히 다르네요!”

그들의 더 많은 질문에 저도 하나하나 선량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거의 2시간을 이야기하자 부부가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아하니 이 파룬궁은 정말 보통이 아니군요.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날씨가 꽤 추웠는데 저는 말을 마치자 온몸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 6) 어떤 기회든 모두 진상을 알릴 기회

한번은 대법 일을 하러 타지역에 가느라 공항 검색대에서 줄을 서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검사원은 휴대용 탐지기로 사람 몸을 훑었는데, 여성들의 작은 핸드백은 검사하지 않으면서 유독 제 가방 속 물건은 바닥에 쏟아 검사하라고 요구하며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알았습니다. 상대방이 제 신분증을 봤고, 신분증 안에 우리 대법제자의 정보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안전과 대법의 사명을 고려해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기에 아예 이 기회를 빌려 진상을 알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면서 유독 내 가방만 검사하나요? 당신들이 내 신분증 정보를 본 걸 압니다. 내가 바로 파룬궁수련자인데 왜요?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헌법》은 공민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고, 어떤 법률도 파룬궁이 사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합법입니다. 누가 마음대로 사교라고 해서 사교가 되는 게 아니라 파룬궁이 사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겁니다!”

제가 로비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자 메아리가 컸고, 또 제가 베이징 사람이라 목소리가 듣기 좋아 순식간에 사람이 점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중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었는데 모두 모여 제 말을 들었습니다.

검사원이 다급해져서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이런 장소에서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얼른 가세요. 그러면 영향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공민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겠지만 당신들은 공민의 권리를 제멋대로 침해하고 있어요! 누구의 영향이 나쁩니까? 파룬궁은 어딜 가나 괴롭힘을 당하니 당신들이 너무 지나친 겁니다! 파룬궁은 불가 최상의 대법이고 사람을 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노인네 말을 믿으세요. 부처를 수련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검사원 몇 명이 거짓으로 예의를 차리며 저를 감싸서 비행기 탑승구까지 배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척 기뻤고, 제게 진상을 알릴 큰 환경을 만들어 준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 맺음말

진상을 알리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끝이 없어 잠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적은 여전히 수련생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중생을 아직 다 구하지 못했고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사존께서도 ‘막바지(末後)’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부근 범위나 구역에서 진상을 알립시다.

사존의 말씀대로 행하고, 많은 집착을 내려놓고, 용감하고 당당하게 마지막 길을 잘 걸어갑시다. 사존께서는 우리가 ‘세간의 대나한(大羅漢)’(홍음-위덕)이라고 하셨습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 충성스럽고 용맹하게 사부님을 도와 정법의 길을 걷다

글/ 중국 창춘(長春) 지역 대법제자 법지(法志)

[명혜망]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혜망이 우리 중국 대법제자를 위해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법회(法會)가 벌써 22회째가 됐습니다. 정법의 마지막 순간에, 저는 제가 본 지역에서 사부님의 정법을 도와 사람을 구하는 몇 가지 체험을 사부님께 보고드리고 수련생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 1. 목숨을 걸고 나를 잊은 채 법난(法難)에 뛰어들다

저는 창춘 외곽 현(縣)의 대형버스 운전기사입니다. 1997년 어느 날, 저는 대형버스를 운전해 성(省) 정부 소재지 기차역 광장을 지나다가 하늘에 있는 아주 큰 회전하는 파룬(法輪)을 보았는데, 태양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몰라 아주 신기해 했는데 이것이 제가 처음 파룬을 본 것입니다. 한번은 아내의 ‘전법륜(轉法輪) (권2)’를 집어 들고 보는데, 사부님께서 설법 중에 불도신(佛道神)을 말씀하시고 종교의 결점을 지적하시는 것을 보고, 저자가 참 큰소리를 친다고 느끼며 의혹이 들어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부님의 설법에 대해 가진 첫인상이었습니다.

1998년, 아내의 ‘전법륜’을 집어 들고 보는데, 책 속에 있는 ‘상(像)’ 자에서 양복을 입은 실제 사람 같은 분이 저를 보고 웃고 계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부님의 모습이 아주 선명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을 보았는데 한 페이지를 다 읽어갈 무렵 ‘어

떻게 글자에서 사람 모습이 나왔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 사부님의 모습이 서서히 열어지더니 ‘상’ 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건 천서(天書)로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부터 천서를 보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는데 오늘 정말로 본 것입니다. 그 후로는 책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운전하다가 남는 시간에 책을 보았는데 책이 온통 금빛으로 번쩍였고, 금빛이 많으면 더 보고 싶었고 금빛이 적으면 좀 덜 보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책 속의 글자가 도는 것이 보였는데, 도는 글자가 많으면 보고 싶고 글자가 적으면 보기 싫었습니다. 달빛 아래서도 글자가 아주 잘 보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제가 뭘 보는지 몰라 저를 놀리기도 했습니다.

1999년 7월 20일 전 며칠 동안, 천목(天目)으로 많은 사람이 버스에 비집고 타는 것을 보았는데 법공부 팀 수련생들에게 말했지만 다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중공(중국공산당)이 사람을 붙잡으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7·20’ 전날 밤, 우리 일행은 차를 빌려 100km 떨어진 성 정부로 갔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아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마침 ‘7·20’ 당일이었고 새벽 연공 시간에 맞춰 포륜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에 있는 각종 형상의 신(神)들이 제 앞에 와서 합장하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법을 실증하는 자신감이 더해졌습니다.

7월 21일, 저는 차를 타고 성 정부 소재지로 가서 법을 실증하려 했습니다. 현지 역에 도착했을 때 파출소 사람들이 지키고 서서 파룬궁수련생은 차에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제 이름을 부르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네 사람은 얼마나 되든 제가 다 태워드립니다. 태워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돈도 한 푼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성 정부 소재지에 도착했는데 성 정부 앞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저는 얼른 택시를 타고 돌아와 수련생 두 명을 태우고 창춘으로 갔습니다.

저는 인민(人民) 광장 제일 앞줄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사람들을 차로 끌고 가는데, 류청쥔(劉成軍)이 윗옷을 벗고 상체에 기름을 발라 경찰이 잡을 수 없게 하고는 그곳을 막아 서서 경찰이 사람을 잡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팔짱을 껐고 경찰은 떼어놓을 수도 끌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이 차에 끌려갔고 다들 파룬을 보았습니다. 오후에 우리를 난령(南嶺) 체육관으로 끌고 갔는데, 차에서 내린 후 우리는 그곳에서 연공을 했습니다. 경찰이 한 겹 에워쌌고 무장경찰이 실탄을 장전하고 경찰 뒤에서 또 한 겹 에워쌌습니다. 류청쥔은 “파룬따파는 좋습니다(法輪大法好)！”, “내 사부님의 결백함을 회복시켜달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다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류청쥔은 ‘우리 사부님은 가장 바르시고 법은 가장 바르며, 우리가 정법(正法)의 일을 하는 것도 가장 바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창춘 경찰이 저를 현지 파출소로 데려갔고 이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7·20’ 이후 현지에는 명혜망에 접속하는 사람이 없어, 저는 기차를 타고 진저우(錦州)로 가서 명혜망 글을 가져왔습니다. 진저우에 두 번 가서 명혜망 정보를 현지 수련생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후 현지에서도 명혜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되어 명혜망의 글과 정보를 제때 돌려볼 수 있었습니다. 명혜망을 자주 봐야만 현지의 정법을 사부님의 정법 노정과 연결해 노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명혜망이 생긴 후부터 저는 전심전력으로 정법에 뛰어들었습니

다. 잠잘 때 옷을 벗지 않았고, 법공부를 하고 싶으면 법공부를 하고 연공하고 싶으면 연공했습니다. 명혜망에 무슨 정법 항목이 떴다 하면 저는 기다릴 새도 없이 바로 했고, 하고 싶으면 일어나서 바로 나갔습니다. 명혜망의 글에서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사부님께서는 밤새 포륜하고 계신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장 추운 날 포륜을 했는데 나중에는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고 방에 들어와서도 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부님께서 연공한다고 얼어 죽지 않는다고 하신 법이 생각났고, 손 위에서 파룬이 돌더니 1분 만에 손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법 일을 하면 사부님께서 격려해 주셨고, 정법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방안 가득 파룬이 있었습니다. 몸의 땀구멍마다 파룬이 있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각종 방법으로 제게 베이징에 가서 정법하라고 일깨워주셨습니다. 한번은 꿈에 큰 대법 배(船)를 보았는데, 사부님께서 검은 양복을 입고 뱃머리에 서 계셨고 흰옷을 입은 노인 형상의 신이 제게 어서 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눈을 뜨고 있는데 누군가 어서 베이징에 가서 정법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구들을 지도 모양으로 깔았는데, 다 펴고 나니 광경이 변해 천안문이 되었고 기차에서 내려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돌면 천안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사부님께서 베이징에 가서 법을 실증하라고 재촉하신 것입니다. 저는 수련생들 사이에서 베이징에 가는 일을 교류했는데 성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제가 누구를 찾느냐고 묻자 그는 후웨싼(胡約三)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찾아도 아무도 베이징에 가지 않기에 저는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 없이 혼자 베이징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날 저녁, 아내와 구들에 앉아있는데 아내의 몸이 큰 산으로 보였고 심장 부위에서 소머리 하나가 나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큰 산이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넘어진 후 보니 아내의 몸이었습니다. 아내의 병은 원래 제가 베이징에 가서 정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가라고 해서 저는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저는 ‘전법륜’을 들고 파룬 배지를 달고 차에 타자마자 ‘전법륜’을 보았는데, 기차가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전법륜’을 한 번 다 보았습니다. 저는 천안문 광장에 도착해 천안문으로 들어갔는데 경찰이 파룬궁을 연마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했고 경찰은 저를 차에 태워 천안문 파출소로 보냈습니다.

파출소에는 파룬궁 접대처가 있었는데 경찰은 “당신들 사부를 위해 공정한 말을 하러 온 거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서명부를 제게 던져주며 왜 베이징에 왔는지 쓰라고 해서, 저는 ‘내 사부님은 가장 바르시다, 내 사부님의 결백함을 회복시켜달라’라고 쓰고 제 이름과 주소를 적었습니다.

주재 베이징 지린(吉林)성 사무소 사람이 저를 사무소로 데려갔는데, 그곳에 있던 수련생이 제게 수기(手記) 경문 ‘도법(道法)’을 주었습니다. 경문은 우리 본성(本性)이 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소 사람은 베이징에 간 우리 10여 명의 창춘 제자들을 데려왔고, 저는 현지 경찰에 의해 현지 구류소로 보내져 하룻밤을 묵고 다시 수용소로 보내졌다가 며칠 후 풀려나 집으로 돌아와 설을 쇠었습니다. 원래 베이징에 갈 때 가져갔던 파룬 배지와 ‘전법륜’, 단편 경문을 모두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사부

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고 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현지 정법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공은 TV, 라디오, 신문 등 모든 선전 도구를 동원해 민중에게 속임수와 거짓말을 주입했고, 대법제자는 각자 사부님을 보위하고 대법을 수호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나와 각종 방법으로 중국 민중에게 대법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사악의 일방적인 악독한 선전을 뒤집었습니다. 이것이 정법이고, 진상의 힘으로 사부님의 결백함을 회복시켜 드리고 파룬따파의 아름다운 진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각종 조건을 이용해 법을 실증했습니다. 저는 수련생들이 법을 실증하는 방법과 자료를 현지에 소개하고 저 스스로 몸소 실천했습니다. 진수(眞修) 제자라면 따라서 하게 됩니다.

한번은 고성능 스피커를 읍내 중심의 TV 송신탑에 걸어두고 아침 7시 30분에 울리게 설정했는데, 큰 스피커가 1시간 동안 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룬궁 라디오 방송국 방송이 나왔어, 파룬궁이 누명을 벗었대”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조건이 열악해 직접 현수막을 제작했습니다. 직접 판을 파서 처음에는 솔에 안료를 묻혀 칠하다가 나중에는 뿌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대법제자를 지지하시고 대법제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수련생 집에서 현수막을 만들었는데 200여 개를 만들자 방안 가득 페인트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우리가 막 방을 치웠을 때 경찰이 왔는데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저는 현수막을 사악이 떼어낼 수 없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걸었습니다. 한번은 현수막을 아주 높은 송전탑에 걸었는데 사악은 전혀 방법이 없어 전기를 끊어야만 현수막을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TV 송신탑에 현수막을 걸자 아무도 감히 올라가지 못

했습니다. 저는 인근 현에도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한번은 현수막을 다 걸고 진상 소책자를 경찰차 위에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잡념도 없었고 마음속에는 오직 사부님의 결백함을 회복시켜드리고 대법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웃 현에 가서 두 달도 안 돼 새로 개원한 병원의 구급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들이 전단지를 돌리며 광고하러 차를 타고 나갔는데, 그들이 전단지를 돌리면 저는 진상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듣자니 그쪽은 진상 자료가 드물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상 자료를 수백, 수천 장씩 가지고 가서 날이 어두워지면 날이 밝을 때 까지 배포했습니다.

한번은 위생국 부국장이 현 정부 회의에 가느라 원장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상 자료를 가지고 차에 탔습니다. 이때 국장이 탔고 과장 몇 명도 탔습니다. 저는 진상 소책자를 꺼내 국장에게 주면서 “국장님, 이 소책자 내용 보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국장이 받아 보더니 다 외지 것이고 우리 지역에는 파룬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국장님 한번 보세요”라고 하자 국장은 다 보고 나서 뒤에 있는 과장들에게 “당신들도 좀 봐, 이건 파룬궁 진상이야”라고 했습니다. 과장 몇 명이 다 달라고 했고 어떤 이는 집에 가서 본다고 했으며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나중에 원장은 겁이 나서 저에게 운전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저와 수련생 2명이 창바이(長白) 중선(中線) 다리 주변에 글자를 스프레이로 뿐렸습니다. 글자를 막 다 뿐리고 나니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곧장 우리 쪽으로 달려오기에 두 수련생은 옆으로 피했습니다. 저는 제가 혼자 감당하고 수련생에게 위험

이 닥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한 손에는 페인트통을 들고 한 손에는 솔을 들었습니다. 경찰차가 급정거하자 저는 곧장 경찰차 쪽으로 달려갔는데 경찰차가 왼쪽으로 핸들을 꺾더니 가버렸습니다. 사부님께서 저를 보호해주신 것입니다. 경찰차가 간 후 우리는 계속 글자를 뿐렸습니다.

그때 파출소 경찰들은 많은 대법 일을 제가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민감한 날만 되면 저를 잡아 가둬 며칠씩 가뒀습니다. 경찰은 “너를 집어넣어야 우리가 편안하게 명절을 보내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직접 전시판도 만들었습니다. 1m 너비에 2m 길이의 두꺼운 종이 위에 대법 진상 소식지를 가득 붙였습니다. 나중에는 천으로 전시판을 만들어 사람이 있는 곳이면 다 붙였는데 눈에 잘 띄는 곳일수록 더 붙였습니다. 외지 현 수련생에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정부 청사 문 앞에 붙이려는데 벽에 붙지 않아 붙일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찾다 보니 정부 청사 문을 여는데 벽 쪽에 광고 게시판이 있어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고 경비원은 자고 있어 저는 솔을 들고 풀칠을 시작해 전시판을 붙였습니다. ‘이건 제대로 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차주가 정부 청사에 출근했다가 제게 말해주기를 “파룬궁이 진상 전시판을 정부 청사 게시판 알림란에 붙여놨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은 비서가 당직이었는데 비서가 경비원에게 “봤어, 못 봤어?”라고 하자 경비원이 겁이 나서 얼른 떠려고 했습니다. 비서는 “떼면 안 돼, 손대지 마. 이따 출근하는 사람들 다 오고 파출소에도 알려서 오게 해. 당신들 경찰은 현지 정부를 보호한다면

서? 파룬궁이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하는 걸 좀 보라고 해. 오늘 정부 청사 모든 사람이 파룬궁 진상을 보게 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전시판을 붙이려고 하는데 파출소 경찰이 마침 PC방 아이들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저를 붙잡았는데 저는 풀을 경찰 얼굴에 들이밀며 “배고프면 이거 먹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제게 춥지 않냐고 물기에 “춥긴 뭐가 추워요?”라고 했더니 그는 “이거 바보네”라고 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진상 활동을 할 때 집집마다 빠뜨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다 같이 협력할 때 저는 거리를 맡아서 했는데 거리에는 행인이 많고 경찰도 많고 잠복근무도 많았지만, 제가 할 때는 골치 아픈 일을 겪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골치 아픈 일이 있었는데 한번은 경찰 두 명을 마주쳤습니다. 제가 진상 자료가 가득 든 큰 가방을 들고 있는데 경찰이 뭐 하냐고 물어서 “방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소변 좀 보려고요”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냥 갔습니다. 저는 좀 겁이 나서 진상 자료를 담장에 던져두고 집으로 뛰어가다가 몇 걸음 가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상 자료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려다 다시 생각해보니 ‘안 하면 안 되지’ 싶어 되돌아가 진상 자료를 다 배포하고서야 집에 갔습니다.

2003년, 명혜망에서 현지 대법제자를 박해한 악인을 고소한 글을 보았는데 사부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지 민중에게 현지의 사악을 폭로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박해받은 경과를 쓰라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외지로 가서 수련생을 찾아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현지에는 감히 글을 쓰지 못하는 수련생이 있었고 어떤 수련생은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하지 못하

게 막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악이 우리를 찾으려 해도 못 찾는데, 감히 실명을 사악에게 알려준단 말인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악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사악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명혜망 앞부분 4~5편의 글이 모두 우리 지역 수련생 박해를 폭로한 생생한 사실이었고, 당시 우리는 현지 ‘명혜주보’도 있어 매일 소식을 내보냈고 자료점에 대량으로 만들라고 알려 매주 큰 자루 하나씩 만들었으며, 다 만든 후 저는 수련생들과 전면적으로 배포해 한 집도 빠뜨리지 않고 했습니다. 이는 사악을 공포에 떨게 하는 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지역 파출소장은 현지 사람인데 장사하는 수련생을 찾아가 “그들에게 제발 (폭로)하지 말라고 전해줘요. 하도 해대서 내가 길 가다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 2. 중공 악당을 폭로하고 ‘9평’을 널리 전하다

2004년 11월 19일, 에포크타임스는 사설 시리즈 ‘9평 공산당 (九評共產黨,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을 발표해 중공의 실제 역사를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부하고, 중공이 한 세기 동안 퍼뜨린 거짓말과 저지른 범죄를 폭로했으며, 하늘과 땅과 싸우고 반(反)인류, 반우주적인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인민에게 중공 악당을 폭로하는 것은 정법 노정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입니다. ‘9평’이 길을 열었고 삼퇴(중국공산당의 3가지 조직 탈퇴)의 큰 물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9평’ 배포하는 일을 현지 수련생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처음 ‘9평’을 전할 때 저는 창춘에서 ‘9평’ CD 9천장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어떤 수련생은 ‘9평’을 전하는 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9평’을 받았다가 심지어 배포한 것까지 다시 달라고 해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9평’ CD 9천장은 거의 다 제가 배포했는데 꼬박 1년 넘게 배포했습니다.

다른 수련생과 함께 ‘9평’ 책 약 5천 권을 만들었습니다. 페이지 추리는 것부터 완제품 만드는 것까지 주로 제가 했는데 2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낮에는 버스를 운전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9평’을 만들며 피곤한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운전할 때 자주 출려 차가 기우뚱거렸지만 늘 놀라기만 했을 뿐 위험은 없었고 교통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외지 수련생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들에게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제가 외지에 가서 싣고 와 현지 수련생에게 주었습니다. 수련생 수요를 넘어서 남은 것은 다 제가 배포했습니다. 저는 ‘9평’을 배포할 때 마을 하나하나를 돌며 거의 한 집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여섯 명의 수련생은 자주 차를 몰고 나가서 배포했습니다. 한번은 5개 현이 접경한 곳에 가서 진상 자료를 배포했는데 ‘9평’ 2천여 권을 가져갔습니다. 두 명씩 한 마을을 맡아 목에 걸고 손에 들고 등에 지고 한 마을을 다 할 만큼 가져갔습니다.

한 수련생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방에서 나오더니 “뭐 하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수련생을 붙잡았습니다. 소리를 듣고 저는 얼른 그쪽으로 뛰어가 ‘9평’ 한 권을 꺼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구하러 왔습니다. 공산당이 어떤지 모르십니까? 지금 천재인화(天災人禍)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원인인지

아십니까? 이 책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건 당신의 복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잠이나 자지 뒷 때문에 이러겠습니까? 가져가서 잘 보시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그가 명해지더니 “아” 하고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사부님께서 수련생의 위험을 풀어주시고 중생을 구하셨습니다.

진상 자료를 줄 때 자주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진상 자료 한 권을 주면 고맙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중생은 모두 진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의 진상 알리기에서는 대법이 좋다는 것을 알리는 것 외에도 악당의 사악함을 알리고 또 삼퇴를 권해야 했습니다.

저는 진상을 알리다가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관리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버스를 운전할 때 자주 진상 자료를 배포하고 승객에게 진상을 알렸습니다. ‘9평’이 발표된 후 저는 전문적으로 9평을 배우고 9평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중공이 얼마나 사악한지, 큰 관리는 크게 탐오하고 작은 관리는 작게 탐오하며 탐오하지 않는 관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시의 정법위 서기가 제 차를 탔는데 그가 내렸다가 제가 말을 다 하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렸는지 아시오? 나는 내려서 공평함을 되찾으러 왔소.” 제가 “무슨 불공평한 일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 말은 확실히 아주 좋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오? 나는 정법위 1인자 자리에 있소.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았는지 아시

오?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살았소. 어머니가 아주 힘들게 뒷바라지해서 공부시켰고, 대학에 간 후 나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하며 돈을 벌어 어머니를 모셨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앉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오? 나는 남에게 돈 한 푼 안 주었소. 이 자리에 앉고 나니 내게 돈을 보내오는 사람이 많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소”라고 했습니다.

또 한번은 여성 경찰관을 만났는데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제가 승객을 태우고 지린의 성모산(聖母山)에 갔는데 그녀는 대형버스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모산에 도착한 후 그녀는 차에서 내려 가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다가가 왜 안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하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봤는데, 우리 차에 탄 이 모든 사람이 당신이 차를 몰고 앞으로 가면 따라가고, 왼쪽으로 돌면 따라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면 따라 오른쪽으로 돌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중에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당신들의 신앙을 위해, 당신들의 사부님을 위해 당신이 하는 일은, 우리 차에 탄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법을 전하실 때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확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천 년이나 지났는데 여러분은 참 대단합니다. 다만 대법제자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보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신속하게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수련생들이 협력해 ‘9평’을 전하며 주변 각 현과 읍을 다 돌았고 한 집도 빠뜨리지 않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료는 네이멍구(內蒙古)까지 전해졌습니다. 다른 공간의 신이 제 앞에 나타나 합장했습니다! 대법제자를 신들이 부러워하는데 이것은 절대 확실한 것입니다.

### 3. 지역에 NTD TV 설치를 시작하다

사부님께서 설법 중에 위성 안테나를 말씀하셨기에 분명 제일 선의 정법 항목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항목을 꼭 해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초기 자금 2천 위안을 들여 수련생과 협력해 민중에게 큰 안테나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항목으로 생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원가만 받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집에 큰 안테나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일반 마을 주민 외에도 마을 간부에게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보급을 위해 우리는 마을 간부들에게 모두 무료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진상을 인근 농가에 널리 전했고 인접한 현과 읍에도 많이 설치했습니다.

본 민중은 대개 즐겨 보았고 다들 좋다고 했습니다! 진상을 명백히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습니다. 대체로 NTD TV 프로그램을 설치한 일반인들은 다 잘 따라왔고, 일반인보다 진상을 더 명백히 알았으며 대법에 대한 태도가 더 직접적이고 선명했습니다.

### 4. 우리 지역의 장쩌민 고소

2015년, 대법제자들은 중공이 이른바 사법 개혁을 선전하며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처리한다 (有案必立 有訴必理)”라고 주장하는 것을 계기로 민(民)이 관

(官)을 고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 각지 대법제자들이 앞다퉈 박해 원흉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NTD TV를 보았는데 매일 숫자가 갱신되었습니다. 400명이 된 것을 보고 저는 수련생들에게 “이제 고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런 형식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이런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법 말기에 기회를 다잡아 정법 노정을 따라가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한 수련생은 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실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했습니다. 그 후 장쩌민 고소 인원이 서서히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이후 형세는 빨리 발전해 6월 2일이 되자 NTD TV는 6월 1일 전에 최고검찰원, 최고법원이 다 접수했고 접수증을 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2일부터 저항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고소장을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후 명예망은 여전히 대법제자에게 장쩌민을 고소할 기회를 주었지만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장쩌민 고소를 늦게 한 사람은 중공의 박해를 받기도 했고 일부는 심각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 5. 사부님을 도와 법난을 끝내다

2024년 6월 5일, 사부님께서는 ‘법난(法難)’을 발표하셨습니다. 정법제자의 수련이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고 사부님께서는 전 체 정법시기 우리가 법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려 하십니다.

2024년 말, 중공 악당은 사부님과 대법에 대해 여론전과 법률 전을 일으켰습니다. 대법제자는 정법시기 수련을 대함에 있어 수

련을 처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명혜망의 교류 문장을 선택해 현지 수련생들에게 배포했고 수련생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앞다퉈 참전했습니다. 과거에는 발정념(發正念)을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 했으나 참전 후 대법제자들은 보편적으로 발정념 시간을 늘렸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법난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을 눈에 띄게 늘렸습니다. 원래 우리는 사람의 활동 방식을 이용해 사부님의 정법을 돋는 것을 중시했는데, 법난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공을 초월해 정법이 급박하고 사부님의 정법은 많은 부분이 시공간에 구현되지 않으며 시공을 초월해 있는바, 우리가 사부님을 도와 시공을 초월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발정념을 많이 하고 발정념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신 외에도 수련생들을 조직해 함께 발정념을 많이 하고 발정념을 잘해, 법난의 최후의 순간에 사부님께서 정법제자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발휘하고 진정으로 박해를 제지하며 사악을 남김없이 제거하고, 사부님의 정법을 돋는 작용을 일으켜 사부님의 자비로운 제도에 부끄럽지 않고 사부님의 막중한 부탁에 부끄럽지 않게 사부님을 따라 신성하고 영광스럽게 회귀해야 합니다!

## 맺음말

대법제자의 정법은 사부님께서 구세력의 배치를 이용해 장계취계(將計就計, 상대 계략을 역이용)로 대법제자의 더 큰 위덕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수 제자가 사악한 환경과 이 구간의 귀중한 시간을 잘 이용해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서약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전체 과정에서 시시각각 사부님의 법으로 자신을 요구했고,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했으며, 가장 큰 체험은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장이 있어 대법제자가 하는 일이 가장 바른 일임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제자가 하는 일은 누구도 참여할 자격이 없고 시험할 자격이 없으며 더욱이 박해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사부님은 가장 바르시고 사부님의 법은 가장 바르며, 정법시기 대법제자가 하는 일도 가장 바른 것으로 오직 일체 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을 뿐입니다. 정법이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는 정념(正念)에 의지해 저는 비로소 최대의 노력을 다해 일체 사악의 교란과 파괴를 타파하고,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하는 일을 가장 크게, 가장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위에서든 정법의 일에서든 사부님께서는 끊임없이 신의 기적을 보여주셨고, 우리 진수 대법제자는 정말로 신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시간과 조건을 이용해 정법 형세의 필요에 협력해 진상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법난 전 몇 년간 저는 전심전력으로 대법 진상을 널리 알렸지만, 사악한 거짓말과 속임수를 타파하고 사부님을 수호하며 대법을 실증하는 면에서 유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9평’이 발표된 후 저는 본 지역에서 수련생과 협력해 현지와 주변 지역에서 최대 범위로 진상을 알렸고 중공 악당의 사교(邪教)와 깡패 본질을 충분히 폭로했습니다.

NTD TV의 영향력을 확대한 것은 민중이 대법을 이해하고 중공을 인식하게 하는 데 힘을 집중한 기초 위에서, 더욱 깊이 있게 진상의 전파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런 착실한 기초 작업은 상당한

범위의 민중이 미래에 삼퇴를 선택하고 미래에 법을 얻을 기초를 닦는 데 지극히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다.

미래의 매우 제한된 시간 안에 저는 사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후일수록 더욱 정진하고 처음 수련할 때와 같은 마음가짐을 유지해 사부님의 막중한 부탁을 저버리지 않으며, 현지의 진수제자들과 함께 사부님을 도와 법난을 끝내겠습니다. 유감없이 합격답안지를 제출해 사부님께서 안심하시게 하고, 사부님께서 우리 진수제자들의 신성한 표현을 자랑스러워하시게 하겠습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 법 암기와 투고 과정에서의 수련 체험

글/ 중국 대법제자

[명혜망] 저는 법을 얻자마자 대학을 갓 졸업했는데,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스스로 책을 한두 번 봤는데, 사부님 책에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만 생각했을 뿐, 처음에는 수련이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변 노수련생 말을 전적으로 들었고 하라는 대로 했으며, 베이징에 가라면 베이징에 갔지만 어리버리해서 베이징에 가서 뭘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노수련생은 제게 베이징에 가서 보모 노릇을 하며 수련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속으로는 공무원직을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일을 극단적으로 하고, 강한 자아에다 자만심 등 각종 마음이 더해져 결과는 뻔했습니다. 결국 직장을 끓었고 가족과 직장이 전부 저를 감시하고 엄밀히 지켜보며 수련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수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법공부하고 연공할 환경을 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국 타지로 떠돌게 됐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도 엉망이었고 비록 제 길은 엉망진창이 됐지만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부님은 옳으시고 법은 좋다. 내가 이렇게 망친 건 분명 내게 문제가 있어서다. 하지만 문제가 어디에 있지?’ 정말 몰랐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 법공부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법 암기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니 적어도 딴생각은 하지 않게 됐습니다. 법을 외우는 과정에서 외우면 외울수록 더 외우고 싶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좋아졌는데, 법을 외우면서 많은 법리를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주 속으로 ‘원래 이렇게구나!’하고 감탄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원인을 알게 됐는데, 이전에 많은 행위가 함부로 한 것이었고,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사람의 경험과 감성적 인식에 의거해 수련 중의 일을 대하거나, 아니면 노수련생의 말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법리로 지도한 것이 전혀 없었으니 당연히 문제가 한 트럭이었습니다.

당시 사부님께서 제게 배치해 주신 업무 환경은 매우 느슨해서 매주 전화 몇 통 받는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업무가 없었습니다. 남는 시간에 동료들은 컴퓨터 소설을 봤지만, 저는 법공부를 했고 한 권씩 이어서 외웠습니다. 저는 매일 법을 외웠고,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피곤한 줄 모르고 완전히 그 속에 빠져 많은 법리를 알게 됐습니다. 2년 넘는 시간 동안 저는 기본적으로 사부님의 각지 설법과 경문을 전부 한 번 외웠습니다. 당시 저는 전법륜(轉法輪)은 외우지 않았는데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 암기는 제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많은 법리를 알게 됐고, 자신의 바르지 못한 많은 사상과 행위를 바로잡았으며, 제가 이후에 수련의 길을 바르게 걷는 데 아주 좋은 기초를 닦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저는 또 전법륜을 외웠는데 수학이 매우 컸습니다.

저는 법 외우기를 매우 좋아해서 책만 잡으면 외우고 싶었고, 특히 외우지 않은 법은 다 외우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허락하면 필수적인 집안일과 수련생에게 진상 알리기 자료를 좀 인쇄해 주는 것 외에는 법공부와 수련만 했습니다. 당시 시간도 매우 아꼈고 1분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부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법공부할 그런 큰 의욕이 났겠습니까!

당시 진지한 의욕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못지않았고, 수련을 지극히 중시했으며, 사부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지극히 중시해 정말 힘을 꽉 주고 수련을 대했습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지극히 중요하고 매 한마디가 모두 중요하기에 반드시 마음속에 단단히 기억해야 하며, 오직 이렇게 해야만이 대법에 부끄럽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전법륜이든 다른 경문이든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모두 기억해야 하고, 기억해야만 제 수련을 지도할 수 있으며, 외워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최소한 한 번은 외워야 마음에 인상이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시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제가 법을 외울 때는 단락을 단위로 했고, 다 외우면 통과했으며 다시 복습하지 않았습니다. 전법륜은 나중에도 끊임없이 외웠고 잘못 외운 부분을 끊임없이 고쳤습니다. 각지 설법 및 경문은

한 번 외우면 통과했고 시간을 내서 다시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음에도 제가 문제에 부닥치면 여전히 외웠던 경문의 원문이 생각났고, 많은 경우 전법륜 속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번은 부모님을 모시고 동물원에 간 기억이 납니다. 큰 유리 안에 사자 한 마리가 갇혀 있었는데, 활동 공간이 없어서인지 동물원 사자는 일반적으로 움직이기 싫어하고 엎드려 잠만 잤습니다. 그날 그 사자가 갑자기 우리를 마주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서더니, 목의 갈기가 곤두서고 눈을 밥그릇만큼 크게 뜨고 우리를 노려보며, 입을 크게 벌리고 갑자기 크게 포효했는데 기세가 산을 뒤엎고 바다를 뒤집을 듯해 유리창조차 따라서 진동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위풍당당한 기세에 주위 관람객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한참 지나서야 반응을 보이며 흥분된 비명과 박수 소리,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아마도 사부님께서 제게 무엇이 ‘수사자처럼’ 용맹정진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이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기세는 정말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법공부에 많은 공을 들인 것 외에도 당시 저는 끊임없이 명혜망에 투고했는데 제 수련에 매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 온 후 각종 어려움에 처해 저는 매우 자괴감이 들었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법을 얻은 후 박해가 이미 시작돼 기본적으로 법공부 팀에 참가한 적이 없었고 수련생과 교류한 적도 없어서 늘 제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으며, 게다가 독수(獨修) 상태에 처해 있어서 저는 ‘투고라도 하자. 간접적으로라도 교류할 수 있는 곳을 찾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하에서 투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조금씩 제 체험을 명혜망에 투고하기 시작했는데, 법을 외울 때 많은 법리를 알게 됐기에 늘 쓸 거리가 많았습니다. 뜻밖에도 명혜망은 제 글의 수준이 얕은 것을 꺼리지 않았고, 편집자의 세심한 수정을 거쳐 많은 글을 발표해주어 제 수련의 자신감을 강화해줬으며, 자신을 바로잡던 그 힘든 나날에 계속 수련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줬습니다.

발표된 글을 볼 때마다 제게 큰 동력을 줬는데, 당시 그런 처지에서 많은 경우 저도 제가 걸어 지나갈 수 있을지, 난을 뚫고 나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글을 쓰는 과정은 점차 제 사고를 더 명확하게 하고 법리에 대해 더 명백해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투고가 발표된 후 저는 늘 저의 이전 원문과 대조해 보며 편집자가 수정한 곳을 보고, 수정된 원인을 찾고 부족함을 찾았는데 이 역시 제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수련생과 간접적으로 교류하는 것처럼, 저는 이런 비학비수(比學比修)의 환경 속에서 심성(心性)을 제고했고, 많은 감성적 사유의 나쁜 버릇을 제거했으며, 제가 하나 하나의 난관을 넘도록 도와주었고,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겨 결국 곤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어떤 수련생은 교류 문장을 쓰는 것이 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진실하게 느끼는 바로는 글을 쓰는 것은 자신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만약 명혜망이라는 이 환경이 없었다면 저도 일어서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명혜망에만 투고하는데, 주로 명혜망이 엄격하게 관문을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쓴 글의 관점이 틀리면 발표된 후 다

른 수련생의 수련을 교란하게 되는데, 이건 도리어 업을 짓고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웹사이트는 관문을 엄격히 지키지 않아 저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다른 웹사이트에는 함부로 투고하지 못합니다. 교류 문장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수학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중에 저도 점차 일부 수련생과 접촉하게 됐는데, 때때로 그들이 어떤 글이 참 잘 쓰였고 말하는 내용이 정말 맞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제가 쓴 것이었지만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습관은 글이 발표된 후 편집자가 수정한 곳을 찾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찾으면 이 일은 지나간 것이며, 마치 저와 관계없는 일처럼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을 위해 공로 장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류문장을 쓰는 것이 사실 수련생 간의 서로 구하는 것이고, 수련생 간에 서로 돋는 것이며, 마치 진상을 알리는 것이 우리와 중생 사이의 서로 구하는 것과 같아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 공동으로 제고해 올라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번은 병업에 관한 꽤 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글을 쓸 때는 단숨에 문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 쓴 후 느낌이 마치 예리한 검이 직접 구세력의 심장에 꽂힌 것 같았습니다. 글이 명혜망에 발표된 후 당일 저녁 저는 꿈을 꿨는데, 사부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작문 공책을 첨삭해 주셨습니다. 작문 공책에는 많은 글이 쓰여 있었고 수십 편은 되는 것 같았는데, 편마다 매우 진지하게 썼고 글씨도 또박또박했습니다. 사부님께서 한 편 한 편 첨삭하시고 전체 작문 첨삭을 마치신 후, 마지막에 붉은 펜으로 높은

점수를 매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게 매우 큰 격려가 됐습니다.

또 한번은 꽤 긴 글을 썼는데 명혜망에 발표된 후 우연히 주변 수련생이 알게 됐고, 어떤 수련생이 매우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칭찬을 마주하자 저는 환희심, 명예욕이 생겨 우쭐해졌는데 이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신이 이렇게 득의양양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이후 끊임없이 억제하고 발정념을 해서 이런 명예욕, 수련생 위에 있으려는 마음, 과시심 등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 칭찬은 자신의 사람마음(人心)이 불러온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비상시기이고 사악은 명혜망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있으니, 저는 중국이라는 이 환경에서 가능한 한 자세를 낮추고, 수구(修口)에 주의하며 안전에 주의해야지 자신에게 골칫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해외 명혜망 수련생들도 매우 자세를 낮추는데 하물며 저는 중국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상생상극(相生相剋)의 이치는 이미 변이되어 인간세상의 어떤 일이든 모두 정과 부(正負)가 동시에 나오며, 긍정적인 작용이 나오면 교란, 심지어 난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사부님 설법을 공부할 때 사부님께서는 명혜망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명혜망 원고는 한편으로는 박해 반대 소식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련생 간의 교류 체험으로, 교류의 장을 제공합니다. 제 생각에 명혜망을 잘 꾸리려면 편집자의 헌신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재가 있어야 하기에, 우리가 교류 원고를 써서 명혜망에 주는 것도 명혜망을 잘 꾸리는 데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명혜망이 잘 운영돼 우리가 명혜망 글을 보면 자신의 수련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명혜망이 현재 글에 대한 관문을 갈수록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투고 과정에서 자신의 많은 부족함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저는 현지의 일부 사오(邪悟)하고 법을 어지럽히는 현상을 보고 매우 위험하다고 느껴 꽤 긴 글을 한 편 썼습니다. 3일이나 걸렸고 저는 스스로 잘 썼다고 느꼈으며, 자세하고 명백하게 썼고 수많은 실제 사례를 들었으며 일련의 표현들까지 나열해 정말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명혜망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디가 틀렸지? 관점은 틀리지 않았고 본 것도 사실인데 왜 안 실렸지?’ 나중에 한 수련생이 무심코 공격성이 너무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하마터면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할 뻔했습니다. 대법제자는 입에서 연꽃이 나와야 하는데 저는 글에서 독설을 퍼부었으니, 이는 악으로 악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난법 문제가 크다고 느껴 여전히 다른 수련생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지나 생각을 바꾸고 예시를 바꿔서 원고를 한 편 더 썼습니다. 이번에는 글을 훨씬 온화하게 썼습니다. 또 명혜망에 투고했는데 여전히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또 안 실렸지? 내 이 관점은 아주 정확한데!’ 나중에 발견했는데, 제가 이 글을 쓴 출발점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수련생이 난법 일에 참여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제가 아직 입을 열어 말하기도 전에 그가 도리어 즉시 제가 잘못 깨달았다고 질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가 글을 써서 당신이 틀렸고 당신이 위험하다는 걸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중에는 승복하지 못함, 쟁투심, 명예욕이 포함돼 있

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마음의 작용 하에서 써낸 것이니 당연히 순정하지 않아 발표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마음을 찾아낸 후 저는 다시 투고했는데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시 글을 한 편 썼는데 여전히 난법 문제에 관한 것이었지만, 수련생에게 온화하게 일깨워주는 것 이었고 악의가 없었으며 질책이 없었고 간단하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발표됐습니다. 저는 발표된 글을 보면 아주 평온했고 명혜망 편집자가 수정한 곳을 찾아, 안으로 수정한 원인을 찾고 자기 심성상의 부족한 점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좋은 수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경우 저는 다른 수련생에게 제 글쓰기에 관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법을 실증하는 일은 과시하기 위해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정법(正法) 중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킬 수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언젠가 제가 환희심과 과시심이 솟아올랐을 때 사부님께서 저를 일깨워주신 적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사부님께서 제게 내려주신 기제(機制)가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지 제 재능이 아니며, 사부님의 지혜이고 사부님께서 내려주신 기제가 대단한 것이지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부님께서는 일찍이 정법에는 노정이 있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제가 깨닫기로 만약 우리가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언젠가는 후회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해 직접 진상 전화를 걸 수 있었을 때, 진상 전화 카드를 사기가 매우 쉬웠을 때는, 오늘의 전화카드가 실명제로 바뀌고 전화 감시, 성문(聲紋) 대조 등이 더해져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 진상을 알리는 이 항목이 거의 중단될 줄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중에 남아 있는 그 한 무더기 휴대폰을 볼 때면 마음속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때 왜 더 다그치지 않았을까? 전화를 좀 더 많이 걸지 않았을까?’

또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종이 지폐를 대량으로 사용했고 지폐가 대량으로 유행해서 우리는 진상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사실은 대부분 사람이 이미 더는 지폐를 사용하지 않고 위챗, 알리페이 같은 전자 결제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 주변 동료들은 거의 지폐를 사용하는 습관이 없습니다. 지폐의 현재 유통성은 많이 낮아졌고 소수 사람만이 여전히 지폐를 사용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전과 비교해 진상 지폐를 통해 진상을 접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줄었습니다. 비록 현재 제가 여전히 진상 지폐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로 지폐가 비주류 결제 방식이 될 줄은 생각지 못했기에, 그해 지폐가 주류 결제 방식일 때 왜 더 많이 하지 않았는지 좀 유감스럽습니다. 더 많이 했다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진상 자료 배포도 포함됩니다. 몇 년 전 현지의 진상 자료는 정말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도처에 있었고 전봇대, 문손잡이, 자동차 차창, 자동차 손잡이, 큰길과 골목 정말 말 그대로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현재 감시 카메라가 갈수록 빽빽해짐에 따라 수련생이 진상 자료를 배포할 때도 예전 같은 그런 대규모가 아니고, 정말 다들 비교적 조심하며, 어디서나 진상 자료를 볼 수 있는 현상도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또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하는데, 정법에는 노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진상 자료를 보고 ‘이미 충분히 많이 배포했다’라고 생각

했는데, 지금에서야 일말의 유감을 느낍니다.

오늘 명혜망 글을 보는데 한 수련생이 꿈속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명혜주간(明慧週刊)’이 정간(停刊)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 일의 사실 유무를 떠나 마음속으로 말할 수 없는 유감을 느꼈습니다. ‘끝나지 않았을 때 틈을 타서 어서 글을 좀 더 쓰자.’ 그래서 즉시 이 글을 다 썼습니다.

최근 법정인간(法正人間)이 곧 도래하고 정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글을 몇 편 봤는데, 이렇게 빨리 도래했다니 아직 믿기지 않고 저는 아직 하지 못한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세를 보면 정말 이렇습니다. 시간이 남겨진 건 무엇 때문입니까? 중생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그치지 않으면 많은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마을을 지나면 다시는 이 가게가 없습니다.

금생에 대법 수련에 들어온 것을 저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련 과정 중에서 비록 자신의 업력과 사람마음, 좋지 않은 오성(悟性)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향후 얼마 남지 않은 정법 수련의 길에서 마음을 조용히 하고 법공부를 잘하며, 인간세상의 득실을 가볍게 보고, 자신을 바로잡으며, 중생을 더 잘 구해 금생에 대법제자가 된 영광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개인의 체험으로 층차에 한계가 있으니 부족한 점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 80년대생, 대법을 착실히 수련하며 당(黨)문화를 닦아버리다

글/ 중국 대법제자 즈전(志眞)

자비로운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80년대생이며 외동딸입니다. 대법 수련은 제게 인생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었고, 대법의 법리(法理)는 끊임없이 제가 바르게 수련의 길을 걷고 법 속에서 제고하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제 22회 명혜망 중국법회를 빌려 제가 심성(心性)을 제고하고 공산당 당문화(黨文化)를 닦아버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사악한 당문화를 주입받아 저는 쟁투심이 매우 강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가족과 싸우고 동료와 싸웠으며 심지어 낯선 사람과도 싸웠습니다.

한번은 제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로는 왕복 2차선이었고 저는 왼쪽 차선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승용차 한 대가 제 뒤에서 추월하려고 경적을 계속 울려댔습니다. 저는 무례하다고 생각해 쟁투심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며 절대 추월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두 차량은 나란히 조금 달렸는데 곧 커브 길이 나와서 저는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고속으로 달리던 차가 감속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는 저는 브레이크를 짹 밟고 핸들을 두 손으로 짹 잡고 차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도로 분리대와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차가 정상으로 돌아와 제대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쿵’ 뛰었고 지금도 당시 장면을 떠올리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 차 안에는 진상 호신부(護身符)가 있고 그 위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짠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저는 사부님께서 저를 보호해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저는 자신의 원망심과 쟁투심을 진지하게 반성했고, 이런 집착심을 없애지 않고 당문화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해로움이 끝이 없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 1. 직장에서 원망을 닦아버리고 포용과 이해를 배우다

### 1) 선한 마음으로 채점 소동을 해결하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기 말에 우리 학년은 다른 학년의 기말 시험지를 채점해줘야 했습니다. 한번은 학년 책임자가 채점 업무를 문의하러 갔고 저는 소식을 기다리며 채점 장소를 물었지만, 그는 계속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대략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퇴근 무렵 돌아와서야 그는 자기가 채점하러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채점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제가 알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저의 원망심이 확 올라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임이 제가 채점하러 가지 않은 일로 질책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명해야 할까 계속 걱정했지만 주임은 저를 찾지 않았고 제 마음의 짐도 내려놓았습니다.

출근해서도 저는 학년 책임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직책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동료에게 이럴 수 있지? 동료를 짓밟고 상사에게 아부하다니, 정말 뻔뻔하네!’ 저는 근무 중에 그를 상대하지 않았고 그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했으며 되도록 사무실에 있지 않고 그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니 마음이 편치 않았고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쟁투심이다. 채점 장소가 몇 군데 안 되니 내가 스스로 찾아가야 했는데 안일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이튿날 저는 동료와의 관계를 풀었고 그가 제게 무엇을 시키면 능동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또 한 학기가 지나 기말 채점 시기가 됐습니다. 그날 학년 책임자가 마침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서 학교에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채점 장소를 찾아 그에게 문자를 보내 장소를 알려주며 조급해하지 말고 진료 잘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게 무척 고마워했습니다.

## 2) 마음을 다해 부담임 역할을 하다

겨울 방학 개학 전날, 우리 학년을 담당하는 주임이 제게 반을 바꿔 부담임을 맡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래 맡았던 반은 학년에서 규율이 가장 좋아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었지만, 새로 바뀐 반은 매우 어수선하고 학생들이 자주 싸웠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담임과 교과 교사가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두 학생이 싸워 한 학생의 손이 발에 차여 골절됐습니다. 두 아이의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의 관리가 소홀했다며 원망했고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학교 지도부와 담임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서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전사고 때문에 그 반은 ‘안전 학급’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난장판인 반의 부담임을 맡기는 거야?’라는 원망이 생겨 못하겠다고 말하려던 참에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불평하자 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호되게 나무라시며 제가 일을 건성으로 한다고 하셨고, 일단 부담임을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지도부(학교 측)에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동의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나의 안일심을 겨냥해 온 것이다. 편안함을 추구하려 하다니, 동료들은 다들 그렇게 힘들는데 대법제자가 어떻게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개학 후 저는 성실하게 반을 이끌었습니다. 점심때 학생들에게 낮잠 시간이 있었는데 간혹 담임이 회의하러 가면 부담임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봐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중공 악당의 영상을 틀라고 요구했지만 저는 틀지 않았습니다. 악당은 ‘거짓(假)·악(惡)·투쟁(鬪)’만 펴뜨릴 뿐이니 대법제자로서 나쁜 짓을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대법제자가 만든 ‘깐징월드’에서 어린이에게 적합한 건강한 영상을 찾아 반에서 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척 좋아했고 진지하게 봤습니다. 중국인은 악당 문화에 깊이 오염됐기에 저 역시 명혜망에 있는 대법제자가 학생을 교육한 좋은 글과 이야기를 즐겨 봤는데, 이는 제게 많은 지혜와 선심(善心)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되도록 명령조를 줄이고 어떤 일을 해도 되고 어떤 일은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었으며, 이치를 많이 설명하고 질책은 줄였습니다.

제가 반을 맡은 동안 아이들은 덜 소란스러워졌고 이 학기에는

진전이 있어 ‘안전 학급’ 상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기뻐했고 갈수록 철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매우 흐뭇했고, 처음에 원망심에 휘둘려 지도부에게 이 반의 부담임을 맡지 않겠다고 요구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대법이 저를 변화시켰고 제업무 환경도 변화시켰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 2. 가정생활에서 쟁투심을 닦아버리고 가족을 선하게 대하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시어머니 식구들과 지내면서 갈등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할 때 아버지가 시내에 400여만 위안(약 8억 원)을 들여 집을 사서 인테리어까지 했고 시댁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감사해야 하고 제게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편애하셨고 제게 수시로 비꼬는 말을 했으며, 제가 일이 바빠 밥을 같이 먹는 횟수가 적은 것을 탓하고 사사건건 시누이 칭찬만 하셨습니다. 저와 시어머니의 갈등과 앙금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시댁에서 제가 가장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 2021년 말에 일어났습니다. 결혼 전 시댁 식구들은 집이 모두 저와 남편 것이라고 했지만, 결혼 후 1년도 채 안 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남쪽 방 세 칸을 손위 시누이에게 주었습니다. 손위 시누이 가족은 남쪽 방의 문 방향을 바꾸고 담을 쳐서 마당을 만든 뒤 세를 놓았습니다.

그때 코로나 봉쇄 때문에 저는 시내에 한 달간 갇혀 있었는데 시댁에 돌아와 보니 손위 시누이 가족이 이미 집을 다 고쳐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게 이 일을 말해주지 않아 원망과 미움이 확 올라왔습니다. 남편과 다투며 시댁 식구들이 사기꾼이라고 했고 시부모님과도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대법 수련자임을 알기에 시부모님과 어떤 갈등이 있어도 그들과 말다툼하거나 뿐으로 끌어하지 않고, 화가 나면 제 방에 들어가 있거나 친정이나 시내에 가서 한동안 머물며 시부모님, 시누이들과의 정면충돌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개조된 남쪽 방을 보면 속이 뒤집히듯 괴로웠고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원망이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시누이들이 저보다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것은 수련인의 상태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전생에 내가 시댁에 빚을 쳐서 이생에 갚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자 뒤집히던 속도 차분해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여름, 시어머니가 병이 나 입원하셨습니다. 하루는 마침 손아래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고구마와 옥수수를 쪄서 병원에 계신 시어머니께 가져갔습니다. 손아래 시누이는 제가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감동했습니다. 저도 선의를 갖고 인사를 건네며 시어머니의 병세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나중에 그녀는 저의 진심과 선념(善念)을 느끼고 아주 편안해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 우리가 함께 내려올 때 그녀는 제게 가는 길에 조심하라고 당부했고 저도 그녀에게 운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 사이에 있던 그 벽이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남편, 손위 시누이, 손아래 시누이가 모두 출근해서 병

원에 시어머니를 보러 갈 사람이 없자, 저는 제과점에서 갓 구운 월병을 사서 시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고 면회 시간이 끝나자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축받아야만 걸을 수 있는 모습을 보자 제 선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무 수련을 못해서 가족조차 구하지 못했구나. 정말 사부님께 죄송하다!’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집에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서로 이해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더 좋은 상태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다.’

예전에는 시댁에 하루만 있어도 시어머니의 많은 말과 행동을 견딜 수 없어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 차 평계를 대고 떠났습니다. 지금은 시댁에 며칠 더 머물며 원망이 생기면 배척하고 법공부를 많이 하니 마음도 금방 평온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라디오 듣기를 좋아하시는데 저는 방송 내용에 근거해 그분께 공산당이 저지른 나쁜 짓을 폭로해 드렸고, 시아버지는 공감하시며 “공산당이 제일 나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3. 집으로 찾아와 불법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악당 요원을 더는 원망하지 않다

저의 어머니는 대법제자입니다. 1999년 ‘7·20’ 이후 신앙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악당의 ‘610’ 요원들이 수년간 빈번하게 어머니를 불법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와서 어머니를 불법적으로 괴롭힐 때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구타해 집안을 마술처럼 만들었고, 저는 속으로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나쁜 짓을 드는 이 악당 요원들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사부님의 설법을 공부하고 수련생들의 교류문장을 보면서 그들도 중공의 거짓말에 속아 잘못을 저지른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마을의 구역 관리원은 우리집 앞집에 사는데 여러 차례 경찰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를 불법적으로 괴롭혔고, 어머니에게 제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며 저를 위협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구역 관리원을 회피하고 상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웃이라 오가며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를 냉담하게 대하면 대법제자에 대한 그의 오해가 더 깊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가 저의 선함을 느껴 악당에게 덜 속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외출할 때 그를 만나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가 차를 몰고 나가는 것을 보면 안전 운전을 하라고 당부하며 그가 저의 선함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이 어머니를 불법적으로 괴롭힐 때 비록 그가 여전히 경찰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 어머니 앞에서 이미 대법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도 변화이자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와 수련생들은 발정념을 많이 해서 현지에서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사악한 요소를 제거하고, 진상을 확실하게 알리며, 악당 요원들이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것을 줄여 그들에게 구원받을 희망이 있게 해야겠습니다.

수련 중에서 저는 제게 아주 깊은 원망심, 쟁투심, 당문화가 있음을 알았고, 이것이 이미 저와 주변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는데 가로막힌 벽이 되고 대법을 실증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법공부를 잘해 법 속에서 제고하고,

원망을 더 없애고 사심(私心)을 더 없애 자비를 닦아내겠습니다!  
사전(史前) 서약을 실현하겠습니다!

개인의 수련 증차에 한계가 있으니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비롭고 위대하신 사부님 감사합니다!

사심 없는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명혜망 제22회 중국법회 원고)



▲ 11월 27일, 시카고는 제91회 추수감사절 대형 퍼레이드를 맞이했다. 시카고 지역 파룬궁수련자들은 올해로 22년 연속 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수련자들은 장엄한 기수대, 평화로운 연공 퍼레이드 행렬, 웅장한 대형 연꽃 꽃차로 현장 관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시카고 CBS 방송국, ABC 방송국, NBC 방송국 등 여러 주류 매체가 당일 시카고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뉴스 보도에서 모두 파룬궁수련자 퍼레이드 행렬의 멋진 순간을 보여주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290명

■ 삼퇴 인원수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5526만 2442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